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 COVER STORY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 COLUMN

소요유(逍遙遊)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안데르센극장



# 1

January 2023  
Vol.373

# VIENNA

NEW YEARS CONCERT

# BOYS CHOIR

빈 소년 합창단  
신년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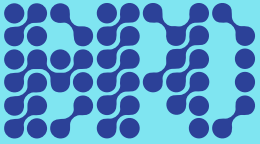


2023. 1. 29 SUN 4:0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596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6 Last Works-I  
Beethoven, Gulda and Dvořák

## 신년음악회

지휘 최수열  
첼로 심준호

베토벤 /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굴다 / 첼로와 관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드보르자크 /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문의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2 0 2 3  
을숙도 예술공감

**응모자격**

음악분야 (피아노, 관악, 현악,  
실내악, 성악, 합창, 국악 등)에서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산지역 예술단체 및 개인

**지원사항**

티켓수익금 전액 공연팀 귀속  
무료대관, 홍보일체

**선발예정**

20개 공연 선정

**접수기간**

2023. 1. 11.(수) ~ 1. 25.(수)  
오후 6시 마감

**결과발표**

2023. 2. 3.(금)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051-220-5814)

\* 자세한 사항은 사하구청 고시공고란과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부산지역  
음악예술인을  
모십니다!



# CONTENTS

## 1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January 2023 Vol.373

2023년 1월호 통권 373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김명숙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2년 12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 06 **신년사**  
상생을 통한 변화와 혁신
- 08 **신년특집**  
(재)부산문화회관 2023년 상반기 기획공연  
부산시립예술단 2023년 신년계획
- 20 **Column**  
소요유(逍遙遊)
- 22 **Cover Story**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2023년 신년음악회
- 32 **반갑습니다**  
'어렵풋, 당신' 시인 동길산을 만나는 시간
- 34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⑰**  
행복을 바라는그림
- 38 **세계오페라축제 ⑩**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 42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기장에서 만나는 안데르센의 동화세계  
안데르센 극장
- 44 **Preview**
- 46 **Review**
- 48 **Program Guide**
- 56 **BSCC News**
- 58 **New Book**

SUN	MON	TUE	WED
<p><b>1</b></p>	<p><b>2</b></p>	<p><b>3</b></p> <p>2023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with 지브리 스튜디오 OST 19:30  <b>대</b> 8만8천원·6만6천원·4만4천원·3만3천원 (취실버트레인(1588-8919))</p> <p>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개막연주 'All that Chamber Music' 19:30  <b>중</b>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4</b></p> <p>2023 부산문화회관 'Trio Barclay' 19:30  <b>편</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p>
<p><b>8</b></p>	<p><b>9</b></p>	<p><b>10</b></p> <p>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3인 3색 in Busan' 19:30  <b>편</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11</b></p>
<p><b>15</b></p> <p>제41회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기념음악회 17:00  <b>대</b> (재)유나이티드문화재단(02-598-9963)</p>	<p><b>16</b></p>	<p><b>17</b></p> <p>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폐막연주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with 피아니스트 심희정' 19:30  <b>편</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18</b></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념심포니야회' 19:30  <b>대</b>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p> <p>유엔평화소년소녀합창단 19:30  <b>중</b> 유엔평화소년소녀합창단</p>
<p><b>22</b></p>	<p><b>23</b></p>	<p><b>24</b></p>	<p><b>25</b></p>
<p><b>29</b></p> <p>2023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16:00  <b>대</b> 7만원·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30</b></p>	<p><b>31</b></p> <p>겨울방학 가족음악회 19:30  <b>중</b> KNN방송교향악단(850-9568)</p> <p>영화음악과 함께 떠나는 오페라여행 19:30  <b>편</b> SJ엔터테인먼트(010-9582-3899)</p>	<p><b>31</b></p> <p>제40회 대한민국 1월 4일(수)-1월 10일(화) (사)한국현대미술</p> <p>BIKAF 부산 어린이 1월 23일(수)-1월 29일(화) 비카프(주) 010-9582-3899</p> <p><b>전시실</b></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4	5	6	7
<p>챔버페스티벌 30 문화회관(607-6000)</p>			<p>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Busan's Culture&amp;Future' 17:00                      챔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1	12	13	14
	<p>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로젠슈타인 현악사중주' 19:30                      챔 전석 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The Variety of Chamber Music' 17:00                      챔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8	19	20	21
<p>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문화회관(607-6000) '부산월드평화음악회' 합단(010-7197-7778)</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6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15	26	27	28
	<p>제1236회 MBC목요음악회 19:30                      대 (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760-1494)</p>		<p>히사미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3 15:00                      대 12만원·9만원·6만원·4만원                      라이브러리컴퍼니(070-4190-1289)</p> <p>이야기가 있는 피아니스트 정소윤 토크 콘서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 톨스토이 단편' 17:00                      챔 7만7천원·5만5천원·3만3천원                      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미술대상전 11일(수) ※ 9일 전시 휴무 협회 010-7727-0309</p> <p>미술 아트 페어 11월 26일(일) 5056-4550</p>	<p><b>공연</b></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
1	2	3	4
8  RCA Festival 18:00 ☎ RCA무용학원(010-4129-4511)	9	10  🎁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3년 신년음악회 19:30 ☎ 초대/아도라블 뮤직(010-2829-7196)	11
15  가족뮤지컬 '급식왕-발가락떡볶이의 비밀' 11:00, 14:00, 16:30 대 7만원·6만원/(주)전공이엔티(1522-2061)	16	17	18
22	23	24	25
29	30	31	<div style="border-left: 2px solid #0070C0; padding-left: 5px;">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margin: 0;">전시실</p> <p>추강준봉 개인전 1월 12일(목)-1월 22일(토) 문봉현 010-661-1111</p> <p>Song Eun's 2 주님의 기도전 1월 31일(화)-2월 6일(일) 부인자 010-651-1111</p> </div>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4	5	6	7
11	12	13	14
18	19	20	21
25	26	27	28
<p>1월 15일(일) 전시실1 84-8848</p> <p>and Exhibition</p> <p>1월 5일(일) 전시실1 55-5438</p>	<p><b>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p> <p><b>※1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무대 점검 기간입니다.</b></p>	<p>현대성악앙상블 '동영을 노래하다' 18:00 ☎ 현대성악앙상블(010-2569-8586)</p>	<p>가족뮤지컬 '급식왕-발가락떡볶이의 비밀' 11:00, 14:00, 16:30 ☎ 7만원-6만원/(주)전공이엔티(1522-2061)</p>

아린  
뮤지엄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 나눔  
지역 예술인을 위한 기회 나눔

## 상생을 통한 변화와 혁신

이정필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2023년 희망찬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육십간지의 40번째로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다산과 다복, 그리고 지혜로움을 상징해왔으며, 검은색 또한 인간의 지혜를 관장한다고 합니다.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에는 이러한 기운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다 시민 모두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다복하고 건강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22년은 (재)부산문화회관이 재단 출범 5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상을 시도한 해이자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이 창단 60주년과 5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입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2022년 '시민의 행복과 문화 가치의 공감'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지난 한 해동안 시설·무대 현대화와 공연 콘텐츠의 차별화, 청년예술인의 활성화 및 문화기관과의 교류 강화, 그리고 내부 결속 강화라는 5대 혁신방향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노사가 함께하는 노사화합 및 경영혁신 비전 선언식을 개최하면서 지역사회 대표문화기관으로서의 대외 의지를 표명하고 노사간의 소통

및 상생을 통한 재단과 부산시립예술단의 변화와 혁신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4년과 2025년에는 부산국제아트센터와 부산오페라하우스가 개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 부산의 문화계 지형도 변화를 앞두고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의 공연장 역할을 재정립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부산 문화의 본당'인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 순수예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제작극장으로, 그리고 올해로 개관 50주년을 맞는 부산시민회관은 대중 장르 중심의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르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콘텐츠 운영에 내실을 다질 예정입니다.

특히 부산의 대표 예술단체인 부산시립예술단이 제작한 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은 초연 첫 해인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 공연의 좌석이 매진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감동이 있는 무대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제작한 창작무용 '수퍼타이거'와 오페라 '라보엠'은 제작극장으로서 수준높은 공연제작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재)부산문화회관은 제작극장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오페라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체 브랜드 뮤지컬을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브랜드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 펜데믹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역 청년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제공하고자 많은 사업들을 펼쳤습니다. 지역 청년예술인을 발굴하고 대중음악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마련한 '부산버스킹페스타'를 시작으로, 부산지역 예술인과 함께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공연예술계의 창·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지역의 청년성악가를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날개프로젝트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 지역의 정상급 연주자들이 마련하는 실내악의 향연 '부산챔버페스티벌' 등 열정과 재능을 갖춘 지역의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 및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진 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퍼 타이거'는 지역 청년 예술인들에게 공공기관에 소속된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 함께 공연을 제작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급여 형태의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기존의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부산버스킹페스타, 부산챔버페스티벌 외에도 2023 대학오케스트라축제, 토크오페라 '세비아의 이발사'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과 열정에 힘입어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해 '2022년 경영평가 문화진흥분야' 1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2023년 올 한해를 ESG 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ESG 경영 전략체계 구축 및 ESG 경영 선포식 추진,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친화 공연장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힘써나갈 예정입니다.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ESG 경영'은 현재 전 세계 트렌드이자 기업의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ESG 경영 중에서도 공연장 특성을 살려 사회(Social) 부분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문화나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기회 나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홍보채널 및 콘텐츠 개선을 위한 SNS 채널의 팔로워 증대와 SNS 주부홍보단 운영,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고객센터 확대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연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부산을 알려온 부산시립예술단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역사와 전통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창단 60주년과 5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에 이어 올해는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 50주년을 맞습니다. 오랜 세월, 시민들과 함께 해온 부산시립예술단은 올 한해도 부산의 문화사절단으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도시 부산을 홍보하는 한편, 수준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나겠습니다. 새해에도 부산문화를 위해 땀 흘릴 부산시립예술단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올 한해도 시민의 행복과 문화의 가치가 공감하고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공연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마다 만복과 화평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

## (재)부산문화회관 2023년 상반기 기획공연

고품격 클래식의 향연에서부터  
지역 예술인을 위한 감동의 무대까지

2022년 위드 코로나 속에서도 공연예술의 생생한 감동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지난 한 해 숨가쁘게 달려왔던 (재)부산문화회관이 올 한해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의 6개 공연장에서는 총 18건, 158회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지난 1973년 개관 후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해온 부산시민회관이 개관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개관 50주년 기념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다양한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부산국제아트센터,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향후 부산의 문화계 지형도 변화를 대비하여 '부산 문화의 본당'인 부산문화회관은 순수공연예술 장르 중심으로,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인 부산시민회관은 시민 친화적인 대중 장르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 공연장별 특성화 전략에 맞춘 다양한 무대로 시민들과 만난다.

---

## 2023년 새해의 시작을 열다

2023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무대는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로,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의 화려하고 세련된 실내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지난 2017년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을 기념하여 시작된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매년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부산 클래식 공연의 위상을 높여오고 있다. 특히 '실내악 대전:부산 밤하늘을 수놓다'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챔버페스티벌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청할 수 없었던 해외 아티스트들이 대거 무대에 설 예정이라 벌써부터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1월 3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미국 퍼시픽 심포니 오케스트라,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 뮌헨 필하모닉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의 리더들이 펼치는 'All that Chamber Music'을 시작으로 1월 17일까지 보름동안 모두 7차례 실내악의 성찬이 차려진다.

새해를 맞아 신년음악회가 빠진다면 섭섭할 터, 올해는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 두 곳에서 신년음악회를 만날 수 있다. 우선 1월 10일 부산시민회관에서는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무대 '2023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가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감독 최수열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완벽한 기교와 따뜻한 감성을 겸비한 한국 최고의 첼리스트 송영훈,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친근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대니 구,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자유로움을 누리는 연주로 각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출연, 신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인 슈트라우스의 폴카, 왈츠 외에도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희망찬 새해를 소망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음악방송 DJ, 클래식 콘서트 진행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기자 김석훈이 사회를 맡아 명품 진행으로 관객들을 클래식 세계로 이끈



빈 소년소녀합창단

다. 1월 29일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천상의 목소리' 빈 소년합창단의 신년음악회가 열린다. 한국과도 깊은 인연을 자랑하는 빈 소년합창단은 1969년 첫 내한공연을 가진 후 지난 50년간 약 35개 도시, 150회 넘는 공연을 하며 최고의 스테디셀러 공연으로 사랑받아 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만에 한국무대에 서는 빈 소년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보이소프라노들이 전하는 맑은 음색과 아름다운 화음으로 관객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무대를 선사한다.

## 고품격 클래식으로 부산의 봄을 수놓다

지난해 차세대 스타들의 완벽한 테크닉과 투명한 사운드의 향연을 즐길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월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는 2023년에도 계속된다. 올해는 6년의 기다림 끝에 탄생한 제18회 쇼팽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브루스 리우(3월 10일)을 시작으로 제12회 시벨리우스 국제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2005년 나고야 국제음악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김다솔(3월 29일)의 지적이고 독보적인 음악세계가 펼쳐지며, 한국 기타음악의 거목 장승호와 최고 권위의 국제기타콩쿠르인 빈 기타 국제콩쿠르의 2021년, 2022년 우승자인 캐시 마르탱, 로안나 코조글로우(4월 27일)의 낭만과 열정이 가득한 기타 선율의 매력에 빠질 수 있다. 올해 '월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마지막 무대는 북미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국제

피  
우  
우  
소  
러  
우  
우  
빠  
핀  
연  
파  
피  
우  
다



콘체르토 말라가

피아노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며 국내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입지를 굳힌 피아니스트 선우예권(10월 6일)의 무대로 꾸며진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4월에는 유럽 최고의 연주단체 두 팀이 부산을 찾는다. 4월 6일에는 1996년 창단한 유럽 최고의 스페니시 앙상블 '콘체르토 말라가'가 부산무대에 선다. 말라가(Málaga)는 피카소의 고향으로 유명한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항구도시로, 지중해의 아름다운 바다와 작열하는 햇빛 아래 빛나는 대표적인 휴양지이다. 콘체르토 말라가는 안달루시아 지역의 음악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2018년 라틴그라미어워드 베스트클래식앨범 후보에 올라 화제가 된 바 있다.

부산 관객과는 처음 만나는 이번 무대에서는 스페인 특유의 열정 넘치는 스페인 음악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다. 4월 22일에는 작곡가 브람스가 직접 지휘했던 200년 전통의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부산을 찾는다. 독일 북서부 한자 지방을 대표하는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브람스 음악세계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오케스트라로,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의 곡만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브람스 음악세계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첼리스트 문태국이 함께 한다. 이밖에 5월 26일에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가슴 따뜻한 선율과 함께 선물처럼 찾아온다. 유키 구라모토는 1999년 봄 첫 내한 후 매년 한

국을 방문하며 위로와 사랑 나아가 치유의 시간을 선사해오고 있다.

###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잡다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잡은 뮤지컬, 발레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 우선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쇼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가 2월 3일부터 사흘간 부산을 찾는다. 1980년 뉴욕 윈터가든 극장 초연 이후 브로드웨이에서도 5000회 이상 장기 공연을 이어가며 흥행불패 신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브로드웨이 42번가'는 국내에서도 지난 1996년 초연된 후 26년째 사랑받고 있는 그야말로 스테디셀러 뮤지컬이다. 오랜 기간 공연되면서 황정민, 남경주, 양희경, 박해미, 최정원 등 한국 뮤지컬계를 이끌고 있는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했다. 18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이번 무대에서는 이종혁, 송일국, 배해선, 정영주, 전수경, 홍지민, 오소연 등 이전에 참여했던 베테랑 캐스트들과 뉴 캐스트 신영숙, 이주순, 유낙원까지 새로운 에너지를 극에 불어넣으며, 고난도의 탭댄스쇼와 볼 거리로 가득한 고품격 쇼뮤지컬의 결정체를 만날 수 있다.

시대를 뛰어넘어 전 세계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낭만발레의 걸작 '지젤'도 올해 부산에서 만날 수 있다. 4월 7일과 8일 유니버설 발레단의 무대로 선보이는 '지젤'은 흔히 발레 하면 떠오르

브로드웨이 42번가





핑크퐁 클래식나라 - 뚜띠를 찾아라

는 순백의 로맨틱 튜튜(tutu)를 입은 발레리나의 군무, 주역들의 화려한 테크닉과 사랑 이야기 등 명작의 요소를 고루 갖춘 작품으로, 1841년 파리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된 후 1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다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어린이 전문극장인 사랑채극장에서는 올 한해 3편의 가족극을 무대에 올린다. 명작동화 ‘백설공주’를 소재로 아이들에게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백설공주와 마법거울’(3월16-4월27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피터팬’의 그 후 이야기를 담은 ‘피터팬과 후크선장’(6월9일-7월23일),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입문용 클래식인 프로코피에프의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8월18일-9월24일)를 상연한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핑크퐁과 함께 떠나는 ‘핑크퐁 클래식 나라-뚜띠를 찾아라’가 지난해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한번 부산을 찾는다. 예술의전당 역사상 가장 어린 관객들을 동원한 레전드 공연으로, ‘TV예술무대’ MC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직접 출연, 연주뿐 아니라 연기, 노래, 춤까지 선보이며 어린이들을 클래식의 세계로

이끈다. 이밖에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했던 ‘아시테지 인 부산’도 7월,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아시테지 인 부산’은 국내 대표, 최대 규모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인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와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공연 외에도 워크숍,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 지역의 예술인과 호응하다

지역 예술가가 참여하는 감동의 무대도 펼쳐진다. 인생 제2막을 노래하는 연극 ‘쓰리보이즈 리턴즈’(2월 10일-11일)가 다시한번 무대에 오른다. 젊은 시절 같은 극단 단원으로 활동했던 세명의 친구가 의기투합하여 만든 ‘쓰리보이즈 리턴즈’는 지난해 여름, 무대에 올려져 퇴직 이후 기성세대의 삶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관객과 진한 소통을 나눈 바 있다.

청년 버스커들의 대축제 ‘부산버스킹페스타’도 올해 6월 펼쳐진다. 지난해 처음 열린 ‘부산버스킹페스타’는 부산의 유일한 신인 예술가 등용 플랫폼으로, 1차 실연 심사를 부산의 버스킹 성지인 광안리, 해운대, 서면에서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은 ‘아코프로젝트’는 이후 카카오TV·넥플릭스 드라마 ‘어쩌다 전원일기’에 음악연주로 참여했으며, 대상팀 ‘밴드 기린’과 우수상 ‘서울부인’은 각각 ‘여행’, ‘내 귀에 꽃이 피네’ 등 앨범을 발매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버스킹페스타

이  
수  
요  
소  
지  
역  
의  
예  
술  
인  
과  
호  
응  
하  
다  
이  
밖  
에  
그  
동  
안  
코  
로  
나  
팬  
데  
믹  
으  
로  
열  
리  
지  
못  
했  
던  
'  
아  
시  
테  
지  
인  
부  
산  
'  
도  
7  
월  
,  
부  
산  
시  
민  
회  
관  
에  
서  
열  
린  
다  
.  
'  
아  
시  
테  
지  
인  
부  
산  
'  
은  
국  
내  
대  
표  
,  
최  
대  
규  
모  
의  
어  
린  
이  
·  
청  
소  
년  
을  
위  
한  
공  
연  
예  
술  
축  
제  
인  
'  
아  
시  
테  
지  
국  
제  
여  
름  
축  
제  
'  
와  
의  
협  
력  
프  
로  
그  
램  
으  
로  
,  
아  
이  
들  
의  
상  
상  
력  
을  
키  
워  
줄  
공  
연  
외  
에  
도  
워  
크  
숍  
,  
체  
험  
프  
로  
그  
램  
등  
다  
양  
한  
부  
대  
행  
사  
가  
마  
련  
된  
다  
.  
  
지  
역  
의  
예  
술  
인  
과  
호  
응  
하  
다  
지  
역  
예  
술  
가  
가  
참  
여  
하  
는  
감  
동  
의  
무  
대  
도  
펼  
쳐  
진  
다  
.  
인  
생  
제  
2  
막  
을  
노  
래  
하  
는  
연  
극  
'  
쓰  
리  
보  
이  
즈  
리  
턴  
즈  
'  
(  
2  
월  
1  
0  
일  
-  
1  
1  
일  
)  
가  
다  
시  
한  
번  
무  
대  
에  
오  
른  
다  
.  
젊  
은  
시  
절  
같  
은  
극  
단  
단  
원  
으  
로  
활  
동  
했  
던  
세  
명  
의  
친  
구  
가  
의  
기  
투  
합  
하  
여  
만  
든  
'  
쓰  
리  
보  
이  
즈  
리  
턴  
즈  
'  
는  
지  
난  
해  
여  
름  
,  
무  
대  
에  
올  
려  
져  
퇴  
직  
이  
후  
기  
성  
세  
대  
의  
삶  
과  
누  
구  
나  
공  
감  
할  
수  
있  
는  
이  
야  
기  
로  
관  
객  
과  
진  
한  
소  
통  
을  
나  
눈  
바  
있  
다  
.  
  
청  
년  
버  
스  
커  
들  
의  
대  
축  
제  
'  
부  
산  
버  
스  
킹  
페  
스  
타  
'  
도  
올  
해  
6  
월  
펼  
쳐  
진  
다  
.  
지  
난  
해  
처  
음  
열  
린  
'  
부  
산  
버  
스  
킹  
페  
스  
타  
'  
는  
부  
산  
의  
유  
일  
한  
신  
인  
예  
술  
가  
등  
용  
플  
래  
트  
폼  
으  
로  
,  
1  
차  
실  
연  
심  
사  
를  
부  
산  
의  
버  
스  
킹  
성  
지  
인  
광  
안  
리  
,  
해  
운  
대  
,  
서  
면  
에  
서  
진  
행  
하  
며  
서  
시  
민  
들  
의  
뜨  
거  
운  
관  
심  
을  
받  
았  
다  
.  
지  
난  
해  
최  
우  
수  
상  
을  
받  
은  
'  
아  
코  
프  
로  
젝  
트  
'  
는  
이  
후  
카  
카  
오  
T  
V  
·  
넥  
플  
릭  
스  
드  
라  
마  
'  
어  
찌  
다  
전  
원  
일  
기  
'  
에  
음  
악  
연  
주  
로  
참  
여  
했  
으  
며  
,  
대  
상  
팀  
'  
밴  
드  
기  
린  
'  
과  
우  
수  
상  
'  
서  
울  
부  
인  
'  
은  
각  
각  
'  
여  
행  
,  
'  
내  
귀  
에  
꽃  
이  
피  
네  
'  
등  
앨  
범  
을  
발  
매  
하  
는  
등  
다  
채  
로  
운  
활  
동  
을  
보  
여  
주  
고  
있  
다  
.  
  
부  
산  
버  
스  
킹  
페  
스  
타



# 2023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부산시립예술단 2023년 신년계획

지난 2022년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이 창단 60주년과 5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였다. 그리고 올해는 부산시립무용단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부산시립예술단은 오랜 세월, 부산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3년 올 한해도 부산의 문화사절단으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도시 부산을 홍보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2023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지난해 창단 60주년을 맞아 뜻깊은 한 해를 보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 해, 또다른 변화를 준비하며 2023년 새해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7년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최수열 지휘자가 6년 남짓한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이자 제600회 정기연주회라는 기념비적인 무대를 앞둔 해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 한해 총 11회의 정기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중 6회는 부산시민과의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 시즌을 준비한 최수열 예술감독이 감사와 아쉬움을 담아 특별히 기획한 무대로, '6 Last Works'라는 테마로 작곡가들이 남긴 마지막 작품을 들려준다. '6 Last Works'의 첫 번째 주인공은 19세기 중후반 민족주의 악파의 거두인 체코의 작곡가 드보르자크로, 1월 19일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6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에서 그의 마지막 교향곡이자 낭만주의 시대의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들려준다. 이 곡을 시작으로 브람스 '교향곡 제4번'(3월 23일, 제598회), 말러 '교향곡 제9번'(6월 16일, 제600회), 하이든 '교향곡 제104번'(10월 27일, 제604회) 등 작곡가들의 마지막 교향곡과 비제의 마지막

작품인 오페라 '카르멘'을 기반으로 한 모음곡(9월 7일, 제602회), 그리고 슈트라우스 교향시의 집대성적인 작품인 '영웅의 생애'(12월 14일, 제606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창단 60주년에 이어 맞는 600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전통적인 교향곡에 이별을 고하고 새로운 음악의 시대를 열었다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말러 '교향곡 제9번'으로, 그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자축하는 시간을 갖는다.

남은 5회의 정기연주회는 객원지휘자가 맡는다. 세계 3대 지휘콩쿠르에서 우승한 대만의 국보급 명장 사요치아 루가 들려주는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11월 17일, 제605회)을 비롯해 광주시립교향악단 홍석원 예술감독의 브루크너 '교향곡 제6번(노바크 판본)'(2월 21일, 제597회), 부산 출신의 금노상 지휘자가 들려주는 바르토크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4월 21일, 제599회), 계명대학교 서진 교수의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7번'(7월 21일, 제601회), 그리고 대한민국 오페라와 발레 지휘의 선두주자 김덕기 지휘자의 차이코프스키 '발레 모음곡'(9월 22일, 제603회) 등 지휘자 자신이 가장 애정하는 레퍼토리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2023년 '올해의 예술가'로는 본인만의 확고한 음악적 신념을 지닌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선정됐다.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인 임윤찬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진 손민수는 올해 무대에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3월 23일 제598회)과 '피아노 협주곡 제1번'(10월 27일, 제604회)을 들려준다. 지난 2021년 도입한 '올해의 예





부산시립교향악단

술가는 능력있는 예술가를 선정하여 한 해동안 협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첫 해 작곡가 김택수에 이어 지난해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선정되어 부산시민과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또한 올해도 실력있는 많은 연주자들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을 위해 부산을 찾는다. 2023년 첫 무대인 '신년음악회'(1월 19일, 제596회)에서는 지난해 교향악축제 무대를 함께 했던 첼리스트 심준호가 무대에 선다. 독주와 협연, 실내악, 오케스트라를 오가는 전방위 플레이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심준호는 특히 이번 무대에서 파격적인 무대매너로 자신만의 입지를 구축했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굴다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음악세계가 드러난 '첼로와 관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들려준다. 이어서 부산시립교향악단 전 단원이 공정한 투표로 선정한 바이올리니스트 나승준(4월 21일, 제599회)에 이어 스위스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부악장을 거쳐 2월부터 프랑스 최고의 명문악단 파리오케스트라 부악장으로 활동하게 될 부산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7월 21일, 제601회), 시벨리우스 콩쿠르 등을 석권하고 파리국립고등음악원 교수로 있는 프랑스의 명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9월 7일, 제602회), 시드니와 프라하의 봄 콩쿠르를 석권한 러시아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타라스

프(9월 22일, 제603회), 그리고 화려하면서도 파워풀한 연주로 정평이 나 있는 바이올린의 여제 백주영(11월 17일, 제605회)이 관객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다.

한편,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정기연주회 외에도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미완성 음악회'와 수준 높은 실내악 무대로 꾸며지는 '실내악 시리즈', 연주 시작 전 음악 칼럼니스트로부터 연주곡에 대한 에피소드와 해설을 통해 교향곡을 더욱 깊이 감상할 수 있는 '심포니아夜', 실험적인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을 새로운 음악세계로 안내하는 '심야 음악회', 그리고 음악회 입장이 어려웠던 영·유아와 부모들을 위한 '우리아이음악회' 등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던 기획음악회 시리즈도 올해 계속해서 선보인다.

### 신선한 감동이 있는 합창무대 부산시립합창단

지난해 창단 50주년이라는 특별한 전환점을 돌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부산시립합창단은 올해도 합창음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로 합창축제를 펼친다.

부산시립합창단은 2023년 올해 3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모두 8차례 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3년 첫 무대로



부산시립합창단

는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유명 지휘자 초청연주회가 열린다.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이 부산 또는 세계에서 활동중인 지휘자를 초청, 부산 관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선한 울림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된 무대로, 2021년 안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객원지휘자 이상길,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이수은이 무대에 선 바 있다. 지난해는 미국합창지휘자연협회(ACDC) 감독 및 로올라 메리마운트 대학교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지휘자 Todd Jere Harper가 관객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산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올해는 춘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임창은(3월 23일, 특별연주회)과 성남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있는 손동현(9월 21일, 특별연주회)이 부산을 찾는다. 임창은 지휘자는 미국 노스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 및 합창지휘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2003년 귀국 후 광주시립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 성남시립합창단, 부천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을 객원지휘했다. 손동현 지휘자는 미국 영스타운 주립대학교에서 합창지휘 석사학위를, 캔사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에서 음악학과 전임교수이자 합창음악 감독으로 활동하다 2017년 귀국 후 국립합창단과 성남시립합창단을 객원지휘하여 한국 합창음악을 이끌 차세대 지휘자로 주목받았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는 가족음악극 ‘옛날 옛적에’(5월 4

일-5일, 제189회 정기)가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첫 선을 보여 가족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은 ‘옛날 옛적에’는 어린이들에게도 잘 알려진 전래동화 ‘해님 달님’, ‘신녀와 나무꾼’ 등 두 편의 이야기를 엮어 만든 창작음악극으로, 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져 기존 합창무대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베르디 ‘레퀴엠’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 이탈리아 낭만주의의 두 거장이자 베르디가 존경하던 음악가였던 작곡가 로시니와 대문호 만조니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작곡한 ‘레퀴엠’은 웅장한 규모와 높은 완성도로 음악사상 가장 기념비적 의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 7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곡들이 영화나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우리 귀에도 친숙하다. 7월에는 지난 2005년 첫 선을 보인 후 매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 ‘2023 Summer Fantasy’를 선보인다. ‘Summer Fantasy’는 매년 여름, 클래식 위주의 딱딱한 공연에서 벗어나 관객과 합창으로 소통하기 위해 기획된 부산시립합창단의 특별한 무대로, 주옥같은 국내가요를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주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왔다. 10월에는 매년 ‘현대 음악 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합창음악을 연주해온 부산시립합창단의 ‘현대합창의 밤’(10월 20일, 특별연주회)에 이어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대에서는 멘덴스존의 ‘엘리야’(11월 23일, 제191회 정기)를 만날 수 있다.

2021년 헨델의 ‘메시아’, 2022년 하이든의 ‘천지창조’에 이어 부산시립합창단 오라토리오 사이클 세 번째 무대로 만나는 멘델스존의 ‘엘리야’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으로, 초기 낭만주의 오라토리오임에도 불구하고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오라토리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밖에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들과 함께하는 합창축제 ‘제34회 부산합창제’는 10월 17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이다.

### 열정이 넘치는 감동의 무대 속으로! 부산시립극단

“2023년 올해는 정기공연의 창작극 비중을 높이고, 부산지역 및 국내 작가의 작품을 새롭게 조망해보는 다양한 창작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연회차를 늘려서 시민들의 연극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예술 교육에 힘쓰기 위해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를 다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의 특별한 성탄선물 ‘크리스마스 캐롤’을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2022년 마지막까지도 바쁜 행보를 보였던 부산시립극단은 2023년에도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다양한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부산시립극단은 올 한해 3차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 그리고 2차례 예술교육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올해를 시작하며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공연예술활동의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를 2019년에 이어 새롭게 운영한다. 부산시립극단이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진행한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어린이들이 전문 스태프들로부터 트레

이닝을 받은 후 이듬해 2월, 어린이뮤지컬 ‘피터팬’을 무대에 올린 바 있다. 당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어린이배우 모집과 포스터 공모전에서는 50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지원하는 등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올해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어린이배우들은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어린이뮤지컬 ‘피터팬’ 공연에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부산시립극단이 어린이, 청소년들의 예술문화체험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예술교육공연 두 편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그 첫 번째로 지난 2020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되어 재미와 감동, 그리고 교훈까지 더해져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연극 ‘미운오리새끼’의 마지막 시즌이 무대에 오르며, 지난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되어 호평받았던 중고생들을 위한 성장드라마 ‘소년 B가 사는 집’의 앵콜무대도 마련된다. 특히 이번 무대는 관객의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제작공연을 통해 부산시립극단의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다양한 관객층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자 마련한 무대이다. ‘미운오리새끼’는 가정의 달인 5월 3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 전용극장인 사랑채극장에서 공연되며, ‘소년B가 사는 집’은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3회 예정된 정기공연은 창작무대로 꾸며진다. 제74회 정기공연(3월 30일~4월 1일)과 제75회 정기공연(9월 중)은 현재 작품 선정 중이며, 2023년 마지막 무대가 될 제76회 정기공연에서는 지난 2년간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산시립극단만의 업그레이드 된 무대로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극단

## 창단 50주년,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게 있어 2023년 올해는 창단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지난 1973년 대한민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으로 창단된 후 반세기에 이르는 세월동안 부산의 문화예술발전과 국내외 공연문화를 선도하며 부산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부산출신의 스타 무용가 이정윤 예술감독이 취임하면서 우수한 기량을 보유하고 있는 45명의 무용수들과 함께 한국춤의 정통성과 국제적인 감각으로 동시대를 아우르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춤 콘텐츠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올해 2차례 정기공연을 포함하여 총 5차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립무용단 창단일인 2월 25일에는 무용단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된다. 두 차례 정기공연(5월 12일-13일, 10월 27일-28일)에서는 부산시립무용단 고유의 색깔을 다듬고, 부산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춤을 통해 부산시민들의 삶 속으로 예술을 끌어들이는 작업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밖에 춤이 관객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춤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이정윤의 댄스살롱'(7월 21일-22일)과 단원들의 뛰어난 춤 기량에 더하여 춤 안무가로서의 성장을 응원하는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디딤&STEP>'(12월 8일-9일)도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1973년 3월 창단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그동안 국내외 수많은 연주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합창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2005년 APEC정상회의 정상만찬축하공연에 참가하며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2년 독일 할레에서 개최된 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해 현대합창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2017년에는 발리에서 열린 발리국제합창제에 참가, 틴에이저, 민속 경연대회 2개 부문 금메달, 챔피언십 2개 부문 금메달, 심사위원 예술특별상 등 6개 부분에서 수상했으며 2018년에는 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을 맞아 외교부 파견 공연단으로 한국을 대표해 에스토



부산시립무용단

니아와 핀란드, 2019년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부산대표로 일본 가나자와에서 공연을 가지면서 국위선양을 한 바 있다.

현재 김수현 수석지휘자가 이끌고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도 긴 역사와 전통에 어울리는 최고의 합창단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 한해 3차례 정기연주회를 포함하여 총 6차례 연주회가 예정되어 있다. 우선 정기연주회는 그동안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다양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춰온 우효원 작곡가의 창작칸타타로, 지구촌 평화와 희망을 메시지를 전하는 'Peace'(5월 27일, 제161회 정기), 창단 50주년을 맞아 역대 지휘자들과 축하무대를 갖는 '4인4색 음악회'(9월 9일, 제162회 정기),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하는 음악선물 '크리스마스 선물'(12월 16일, 제163회 정기)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밖에 단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량향상음악회'(2월 중, 특별연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회), 부산지역 작곡가들의 합창작품 공모를 통한 프로젝트 음악회 '창작의 밤'(7월 15일, 특별연주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만에 진행되는 부산 청소년들의 합창축제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11월 3일~4일, 특별연주회)가 예정되어 있다.

### 2023년, 새로운 출발점에 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난해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속에서 분주한 한 해를 보냈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현재 단체를 이끌어온 수석지휘자가 공석이라 올해 신임 수장이 선임되는대로 재정비 후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 1984년 창단하여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일년 앞두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전통 국악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는 한편, 우리음악의 대중화 및 현대화 작업에 꾸준히 힘써왔다. 현재 전문연주자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정기, 특별, 기획연주회와 덴마크, 터키, 싱가포르, 인도,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미국, 독일, 호주 등 국내외 다양한 연주회에서 우리음악을 수준 높게 소화해 내고 있다. 특히 외교부에서 주최한 전국지자체 문화예술공연 해외파견공모에 2013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선정되어 2013년에는 한·독 수교 130주년 기념 및 파독광부 50주년 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념공연을 독일 뒤셀도르프와 함부르크에서 성황리에 마쳤으며, 2015년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연주회를 일본 삿포로 시민홀에서 선보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매년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그동안 청소년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극대화하고 음악적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내외 정상급 협연자를 초청하여 보다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해왔다. 또한, 2001년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 문화회관 연주를 시작으로 2007년 대만 타이중과 가오슝, 2009년과 2011년, 2014년 일본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홀 공연, 2010년에는 미국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2012년 베트남 호치민 오페라하우스, 2013년 중국 푸저우 복건대극원 오페라홀 등 해외에서 성공적인 연주를 마치며 현지 관객의 뜨거운 갈채와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특히 2018년에는 유리시아 청년대장정의 마지막 기착지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러 수교의 밤을 갖는 등 한국과 부산시의 문화 사절단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2023 PERFORMANCE CALENDAR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문화회관	대극장	기획	1/29(일) 2023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2/3(금)-5(일)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3/29(수)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II '양인모&김다솔 듀오 리사이틀'	4/6(목) 스페인쉬 챔버 앙상블 '콘체르토 말라가' 4/22(토)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예술단	1/18(수) 교향 '심포니아(夜) 1' (기획) 1/19(목) 교향 'Beethoven, Gulda and Dvofak' (제596회 정기)	2/21(화) 교향 'Wagner and Bruckner'(제597회 정기)	3/21(화) 교향 '심포니아(夜) 2'(기획) 3/22(수) 교향 '미완성음악회 1'(기획) 3/23(목) 교향 'An All-Brahms Program'(제598회 정기) 3/28(화) 청소년교향(제70회 정기) 3/31(금) 국악(제219회 정기)	4/21(금) 교향 'Mendelssohn and Bartok'(제599회 정기)	5/4(목)-5(금) 합창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제189회 정기) 5/18(목) 국악(제220회 정기) 5/19(금) 교향 '우리아이음악회'(기획) 5/23(화) 청소년교향 솔로리스트들의 축제(특별) 5/27(토) 소년소녀(제162회 정기)	6/14(수) 교향 '미완성음악회 2' (기획) 6/15(목) 교향 기획음악회(기획) 6/16(금) 교향 'Mahler's 9th Symphony' (제600회 정기) 6/20(화) 국악(제221회 정기) 6/22(목) 합창 '베르디 레퀴엠' (제190회 정기)
	중극장	기획	1/3(화)-17(화)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3/10(금)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I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4/27(목)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빈 기타 국제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예술단		2/16(목)-19(일) 극단 '어린이뮤지컬 피터팬'(특별) 2월 중 소년소녀(특별)	3/23(목) 합창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1'(특별) 3/30(목)-4/1(토) 극단(제74회 정기)	3/30(목)-4/1(토) 극단(제74회 정기) 4/28(금) 국악(특별)		
	챔버홀	기획	1/3(화)-17(화)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2/2(목) 국악 '2023 신년음악회'(특별) 2/3(금) 교향 '실내악 시리즈 1'(기획)	3/3(금) 교향 '부산시향의 줌인(Zoom-in) 1'(기획)		5/4(목) 교향 '실내악 시리즈 2' (기획)	6/17(토) 청소년교향 '유망주음악회'(특별)
		사랑채 극장			3/16(목)-4/27(목) 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3/16(목)-4/27(목) 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5/3(수)-28(일) 극단 '미운오리새끼' (예술교육)	6/9(금)-7/23(일) 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
		대극장	1/10(화)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4/7(금)-8(토)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5/20(토) 핑크퐁 클래식 나라- 뚜뚜를 찾아라 5/26(금)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시민회관	예술단		2/25(토) 무용 '무용단 창단 50주년 기념행사 및 공연'(기획)			5/12(금)-13(토) 무용(제87회 정기)	
		소극장	기획	2/10(금)-11(토) 쓰리보이즈 리턴즈				6/3(토) 부산 버스킹 페스타
		예술단						6/14(수)-16(금), 6/20(화)-23(금) 극단 '소년B가 사는 집' (예술교육)
	야외마당							
	기타공연장				4/5(수) 교향 '2023 통영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6/25(일) 교향 '2023 교향악축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기획공연은 상반기 일정만 게재합니다. 이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10/6(금)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린 피아노 리사이틀		
7/20(목) 합창 '2023 Summer Fantasy'(특별) 7/21(금) 교향 'Shostakovich and Prokofiev'(제601회 정기)		9/5(화) 청소년교향(제71회 정기) 9/7(목) 교향 'Four French Composers'(제602회 정기, 202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9/9(토) 소년소녀(제163회 정기) 9/13(수) 국악(특별)	10/17(화)-19(목) 합창 '제34회 부산합창제'(특별) 10/20(금) 합창 '현대합창의 밤'(특별) 10/27(금)-28(토) 무용(제88회 정기) 10/31(화) 청소년교향(특별)	11/3(금)-4(토) 소년소녀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특별) 11/16(목) 국악(제222회 정기) 11/17(금) 교향 'Prokofiev and Rachmaninov'(제605회 정기) 11/23(목) 합창 '멘델스존 엘리아' (제191회 정기)	12/7(목)-10(일) 극단 '크리스마스 캐롤'(제76회 정기) 12/12(화) 국악(제223회 정기) 12/13(목) 교향 '미완성음악회 4'(기획) 12/14(금) 교향 'Pärt and Strauss'(제606회 정기) 12/16(토) 소년소녀(제164회 정기) 12/26(화) 청소년교향(제72회 정기)
7월-8월 중 2023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7월-8월 중 2023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7/15(토) 소년소녀(특별) 7/21(금)-22(토) 무용 '이정윤의 댄스살롱. 별이 빛나는 밤에'(특별)	8/18(금) 교향 '심야음악회'(기획)	9/21(목) 합창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II'(특별)	10/6(금) 교향 '제79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기획) 10/12(목) 국악 '제48회 청소년 협연의 밤'(특별) 10/25(수) 교향 '심포니아(夜) 3'(기획) 10/26(목) 교향 '미완성음악회 3'(기획) 10/27(금) 교향 'Haydn and Brahms'(제604회 정기)		12/8(금)-9(토) 무용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디딤&STEP'(특별)
7/20(목)-21(금) 국악(특별) 7/22(토) 청소년교향 '유망주음악회'(특별)				11/3(금) 교향 '부산시향의 줌인(Zoom-in) 2'(기획) 11/11(토) 청소년교향 '유망주음악회'(특별)	12/1(금) 교향 '실내악 시리즈 3'(기획)
6/9(금)-7/23(일) 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	8/18(금)-9/24(일)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8/18(금)-9/24(일)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9/22(금) 교향 'An All-Tchaikovsky Program'(제603회 정기)			
7월 중 아시테지 인 부산					
		9/7(목)-23(토) 극단(제75회 정기) ※장소미정			

‘날마다 새로워지면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워진다.’

##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권은영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소

요

유

(逍遙遊)

‘저 멀리 북쪽바닷가에 물고기가 있어. 그 이름이 곤이야. 곤의 크기가 몇 천 리가 되는지 아무도 몰라. 이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봉이라고 해. 봉의 등이 몇 천 리인지 알 수 없어. 이 봉새가 온 힘을 다해 한번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아. 이 새는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남쪽 바다로 옮겨갈 준비를 하는데 남쪽 바다는 하늘의 뜻이야.’

장자의 소요유(逍遙遊) 1장에 나오는 대봉(大鵬) 이야기이다. 소요유편의 우화를 읽다 보면 ‘크다(大)’와 ‘변화(化)’, 이 두 단어가 우화의 주제를 관통한다는 느낌이 든다.

‘곤’이라는 물고기는 <주역>(周易)에서 땅을 상징하는 곤(坤)과 발음이 같다.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의 도약은 가볍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한계의 극복을 통한 자기 변화의 실천으로 가능한 것이 아닐까? 여기에서 변화를 뜻하는 ‘화(化)’에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화자의 왼쪽에 있는 ‘인(人)’ 자는 살아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비(匕)’ 자는 죽은 사람을 그린 것이라 한다. 그래서 ‘化’는 산 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살아 있는 존재가 사멸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변화의 의미가 온 몸으로 깨우쳐 지는 것 같다.

날아오르거나 상승하는 것은 물고기인 곤으로서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이며, 다른 것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 변화를 위한 것, 이것은 뭘까? 장자의 우화에 등장하는 작은 새들, 매미와 산비둘기, 메추라기들은 자기 한계 속에서만 선화하면서 하늘을 뚫고 날아오르는 대봉의 비행을 이상하게 바라본다. 장자의 우화에서 지속되는 작은 것과 큰 것의 대비에서 ‘크게 자라 변화한다(大而化之)’라는 말의 적절한 풀이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 작은 것은 변화할 수 없다. 작은 것은 그저 자기의 한계만을 고수하면서 자기세계 속에서만 생활할 뿐이다. 오로지 큰 것만이 변화할 수 있다.

무엇에도 구속 되지 않는 삶, 초월과 해방의 그 경지에서 소요유(逍遙遊)하는 삶을 꿈꾸며 새해 첫 달, <대학(大學)>의 다음 글귀를 곱씹어 본다.

‘날마다 새로워지면 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워진다.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2023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1월 3일(화)~17일(화)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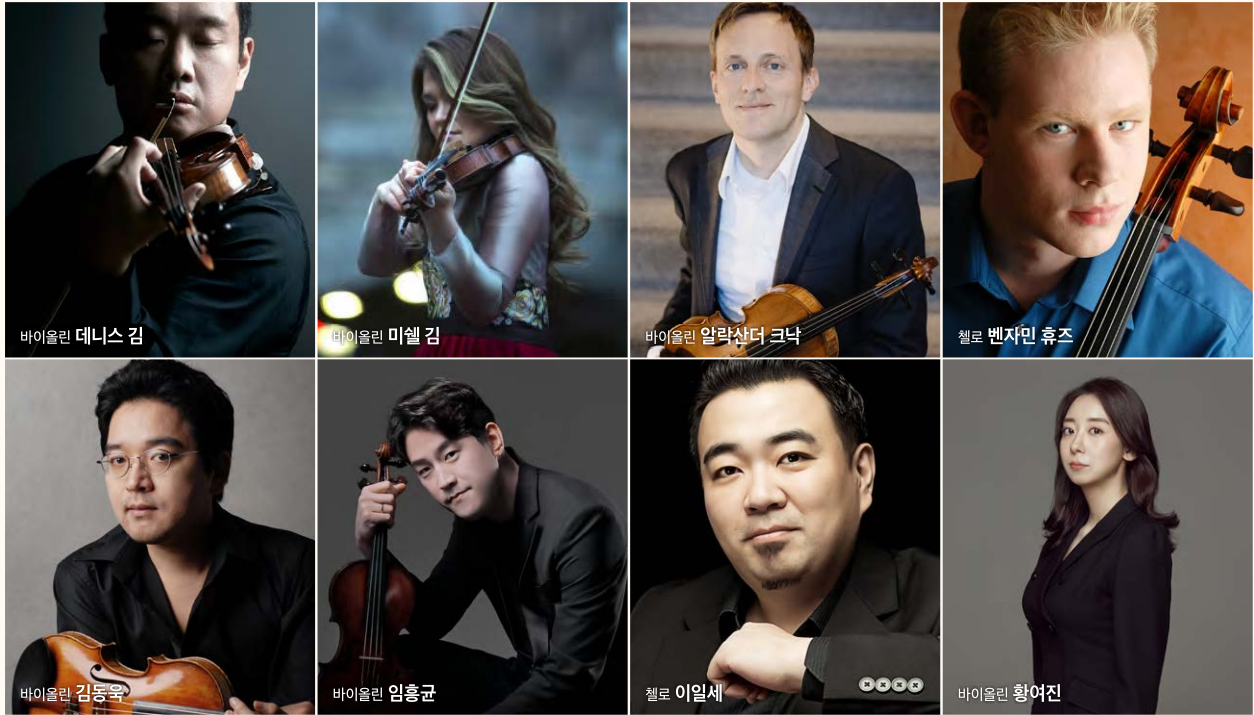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

• 문의/(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Invitation from Busan*

부산으로부터의 초대

2023 BUSAN  
CHAMBER  
FESTIVAL



## 겨울을 맞이하는 화려하고 세련된 실내악의 향연

정상급 연주자들의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실내악의 향연이 펼쳐지는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이 1월 3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지난 2017년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을 기념하여 시작된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매년 화려한 라인업과 풍성한 레퍼토리로 정통 실내악의 감동을 선사하며 부산 클래식 공연의 위상을 높여왔다. 지난해부터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 리더로 활동하는 김동욱이 예술 감독을 맡아 보다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청할 수 없었던 해외 아티스트들이 대거 무대에 설 예정이라 벌써부터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우선 30년 역사의 바클레이 극장의 첫 상주 연주단체인 바클레이 트리오가 부산을 찾는다. 바클레이 트리오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데니스 김, 첼리스트 조나 김, 그리고 피아니스트 선 케너드가 관객과 연주자 모두에게 흥미롭고 역동적인 음악적 체험

을 선사하기 위해 결성된 앙상블로, 지난 2021년 창단된 후 18세기 초부터 오늘날의 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명징하고 잊을 수 없는 연주로 들려주면서 피아노 트리오의 새로운 음악적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남부독일을 대표하는 명문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과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구성된 로젠슈타인 현악4중주(Rosenstein String Quartet)도 이번 무대에 선다. 로젠슈타인 현악4중주는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 부수석 알렉산더 크낙(바이올린)과 단원 이수은(바이올린), 부수석 디르크 헤게만(비올라),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마누엘 본 데어 나머(첼로)로 구성됐으며, 완벽한 호흡으로 아름다운 앙상블을 들려주고 있다. 이밖에 뉴욕 필하모닉 부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메네스 음대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미셸 김과 영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다재다능한 첼리스트 중 한 명으로, 2007년부터 영국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벤자민 휴즈도 만날 수 있다.

국내 연주자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

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과 대구MBC교향악단 수석, WOS비르투오조챔버 수석으로 있는 비올리스트 배은진, 더브릿컴퍼니 소속 아티스티이자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예술 부감독으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 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수석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 경상북도도립교향악

단,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수석으로 있는 비올리스트 최영식,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비올리스트 홍여진,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수석 첼리스트 홍승아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주빌레 클라리넷 앙상블, KNN앙상블, 앙상블 아토,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등 부산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내악팀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꾸며준다.

### ✓ [개막연주회] All that Chamber music

1월 3일(화) 오후 7:30 중극장 /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공연은 뉴욕 필하모닉,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미국 퍼시픽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리더들이 펼치는 실내악 앙상블 무대로, 한국초연곡인 웨리던 사이프리의 '클라리넷, 현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6중주'를 비롯하여 슈베르트 '현악5중주 작품 956', 멘델스존 '현악8중주 작품 20'을 들려준다.

- 바이올리니데니스 김, 미셸 김, 김동욱, 임흥균
- 비올라|최영식, 배은진 • 첼로|요나 김, 벤자민 휴즈
- 피아노|션 케너드 • 클라리넷|백동훈

### ✓ Trio Barclay : The Essentials of Piano Trio & Quintet

1월 4일(수) 오후 7:30 챔버홀 / 입장료 전석 2만원



바이올리니스트 데니스 김과 첼리스트 요나 김, 피아니스트 션 케너드로 구성된 바클레이 트리오의 무대로, 바이올리니스트 미셸 김, 비올리스트 최영식과 함께 독창성과 서정성이 만개한 브람스 실내악의 최고봉 '피아노 5중주 작품 34'와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트리오 제2번 작품 67'과 드보르작 '피아노 트리오 제4번 작품 90'을 들려준다.

- 바이올리니데니스 김, 미셸 김 • 비올라|최영식
- 첼로|요나 김 • 피아노|션 케너드

## ✓ Busan's Culture & Future

1월 7일(토) 오후 5:00 챔버홀 / 입장료 전석 1만원



부산의 차세대 문화를 이끌어 나갈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실내악팀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부산을 넘어 한국의 K-클래식을 이끌어갈 부산예술중학교 실내악팀도 참여한다.

## ✓ 3인 3색(三人三色) in Busan

1월 10일(화) 오후 7:30 챔버홀 / 입장료 전석 2만원



부산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빌레 클라리넷 앙상블과 KNN 앙상블, 앙상블 아토의 무대로, 저마다 다른 매력에 있는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대표 정우희를 비롯해, 황수빈, 최연주, 최우선 그리고 박관희로 구성된 주빌레 클라리넷 앙상블은 지난 2016년 창단 후 대중들에게 클래식, 재즈, 가요,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클라리넷의 매력을 전하며 부산을 대표하는 클라리넷 앙상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NN 앙상블은 바이올린 김나형, 최종완, 비올라 김민경, 첼로 이예성 등 KNN방송 교향악단 현악 수석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바이올린 손은혜, 고은비, 탁서연, 정아람, 비올라 정희경, 정하람, 첼로 박예리나, 윤주연 등 부산에서 활동하는 젊고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8중주단인 앙상블 아토는 그동안 수준 높은 연주와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 ✓ 로젠슈타인 현악4중주(Rosenstein String Quartet)

1월 12일(목) 오후 7:30 챔버홀 / 입장료 전석 3만원



독일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과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단원들로 구성된 로젠슈타인 현악4중주의 무대로, 이번 무대에서는 후기 낭만주의 헝가리 작곡가인 엠마누엘 무어의 '현악4중주를 위한 전주곡과 푸가', '현악4중주를 위한 서정 소곡집 작품 139'를 한국 초연으로 들려주며, 차이콥스키의 현악6중주 '폴로렌스의 추억'을 비올리스트 황여진, 첼리스트 홍승아와 함께 연주한다.

- 바이올린 | 알렉산더 크낙, 이수은
- 비올라 | 디르크 헤게만, 황여진
- 첼로 | 마누엘 본 데어 나며, 홍승아

## ✓ The Variety of Chamber music

1월 14일(토) 오후 5:00 챔버홀 / 입장료 전석 2만원



현악과 피아노, 성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로,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오, 첼리스트 김지영, 피아니스트 조민현, 김성주, 소프라노 양송미와 동백유랑단이 함께 연주한다. 동백유랑단은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비올리스트 가영을 중심으로 바이올린 조혜운, 피리 진형준, 피아노 이동욱, 퍼커션 이경민 등 국내 최고의 클래식 아티스트와 국악 명인으로 구성된 크로스오버 월드뮤직 프로젝트 앙상블로,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 신디사이저, 퍼커션, 피리, 태평소 등 다양한 음색의 악기로 월드뮤직을 새롭게 재해석한 컨템포러리 크로스오버 장르를 선보여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헨델과 브람스의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피아졸라의 탱고, 켈틱 민요, 러시아 민요 등 다양한 월드뮤직을 들려준다.

## ✓ [폐막연주회]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with 피아니스트 심희정

1월 17일(화) 오후 7:30 챔버홀 / 입장료 전석 2만원



부산의 티켓파워 1위의 스트링 앙상블인 앙상블 코스모폴리탄의 무대로, 15일간의 화려했던 챔버페스티벌의 막을 내린다. 지난 2010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인 이일세 음악감독을 중심으로 창단된 앙상블 코스모폴리탄은 그동안 바로크에서 현대음악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왔다.

앙상블 코스모폴리탄은 챔버페스티벌 원년인 2017년에 이어 2018년 2년 연속으로 초청받아 무대에 섰으며, 2018년 가을에는 외무부 국가 기념일 행사의 일환으로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유럽 3개국 투어 공연을 가진 바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정기연주회 '겨울나그네, 죽음, 그리고 소녀'에서는 슈베르트의 가곡을 바리톤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으로 새롭게 편곡하여 큰 호평을 받았으며, 시민들이 클래식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컨셉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제주대학교 교수인 피아니스트 심희정과 함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4번 작품 491'에 이어 이일세 편곡의 슈베르트 현악4중주 '죽음과 소녀'를 들려준다.

개막 연주회

# All that Chamber Music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리더들의 실내악 향연

1. 3 화 19:30 증극장

바이올린 | Michelle Kim (이혜림) | Dennis Kim (데니스 김)  
김동욱 | 임홍균  
비올라 | 최영식 | 박은진  
첼로 | Jonah Kim (오나 김) | Ben Hughes (벤 휴즈)  
피아노 | Sean Kennard (선 케너드)  
프티아니스트 | 백동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23

# BNK 부산은행 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부산으로부터의 초대

Invitation from Busan

# 2023 BUSAN CHAMBER FESTIVAL

2023. 1. 3 TUE - 1. 17 TUE

평일 | 19:30 / 주말 및 공휴일 | 17: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증극장

예술감독 김동욱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 Rosenstein String Quartet

로젠슈타인 현악4중주

1. 12 목 19:30 챔버홀

바이올린 | Alexander Knaak (알렉산더 크나)  
이수은

비올라 | Dirk Hegemann (디르크 헤게만)  
황여진

첼로 | Manuel Von Der Nahmer  
(만누엘 폰 데어 나머)  
홍승아



# Trio Barclay

The Essentials of  
Piano Trio & Quintet

비올라이 트리오가 들려주는  
피아노 트리오와 콰인텟의 진수

1. 4 수 19:30 챔버홀

바이올린 | Dennis Kim (데니스 김)  
Michelle Kim (이혜림)  
비올라 | 최영식  
첼로 | Jonah Kim (오나 김)  
피아노 | Sean Kennard (선 케너드)



# The Variety of Chamber music

기(起) - 승(承) - 전(轉) - 실내악(室內樂)

1. 14 토 17:00 챔버홀

바이올린 | 김현오  
첼로 | 김지영  
피아노 | 조민현  
소프리아노 | 양송미  
피아노 | 김성주



등백유랑단

바이올린 | 가영 | 바이올린 | 주혜은 | 피리 | 진형준 | 피아노 | 이동욱 | 피커션 | 이경민

# Busan's Culture & Future

학교 실내악 축제

1. 7 토 17:00 챔버홀



# 3인3색(三人三色) in Busan

실내악 열전

1. 10 화 19:30 챔버홀

주빌레 클라리넷 앙상블

클라리넷 | 최우선 | 최연주 | 박관희 | 황수빈  
베이스 클라리넷 | 김정민

KNN 앙상블

바이올린 | 김나형 | 최종완  
비올라 | 김민경 | 이예성

앙상블 아토

바이올린 | 고은비 | 손은혜  
장아람 | 탁서연  
비올라 | 정희정 | 정하람  
첼로 | 김기량 | 박예리니



폐막 연주회

# 앙상블코스모폴리탄 with 피아니스트 심희정

1. 17 화 19:30 챔버홀

음악감독 | 이일세  
피아노 | 심희정



| 티켓 | 3/2/1만원(공연별 상이)

| 예매 |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 문의 | 051.607.6000 (ARS 1번)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주관 | Marine7 A&M

| 협찬 | BNK 부산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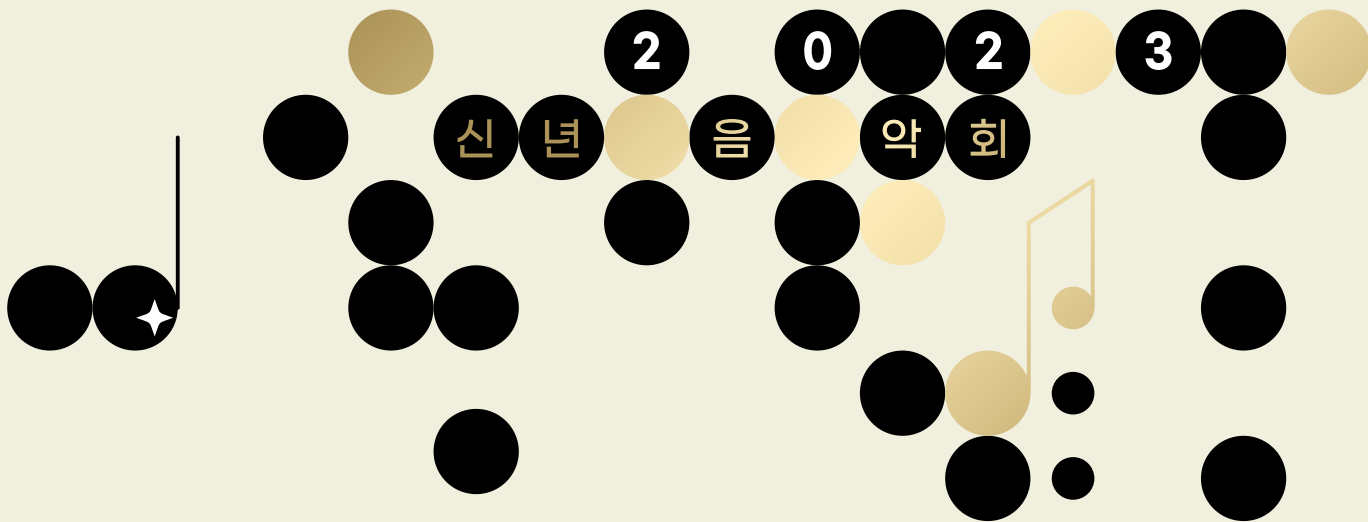
음악으로 전하는 신년연하장

## 2023년 신년음악회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의 첫 걸음을 내딛는 1월,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년음악회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신년인사를 전한다.



1월 10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가 펼쳐진다. 지난 1973년 개관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시민회관은 2017년 (재)부산문화회관에 통합된 후 대중 장르 중심의 시민친화적인 공연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부산시민회관의 개관 50주년을 축하하는 첫 무대인 '신년음악회'의 주인공은 최수열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973년 10월 10일, 부산시민회관 개관 당시 경축공연을 이끈 대표적인 연주단체이자 그 해 10월 1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정기공연을 올린 최초의 단체이다. 이번 신년음악회에서는 연기자 김석훈이 사회를 맡고 첼리스트 송영훈,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협연자로 시민들과 만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월 19일 제596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를 통해 시민들과 신년인사를 다시 한번 나눈다. 올해 임기를 마무리하는 최수열 예술감독의 마지막 시즌이자 2023년 시즌의 시작인 '신년음악회'에서는 한국 음악계의 가장 독보적인 첼리스트로 자리매김한 심준호가 함께 한다.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 빈 소년 합창단은 1월 29일 '2023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를 통해 위로와 치유의 노래를 들려주며, 우리 전통국악의 맥을 잇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월 2일, '2023년 신년음악회'를 통해 새해의 밝은 기운을 담아 신명 넘치는 무대를 펼친다.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1월 10일(화)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사회 김석훈



첼로 송영훈



바이올린 대니 구



피아노 박종해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무대인 '2023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에서는 클래식 음악방송 DJ, 클래식 콘서트 진행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기자 김석훈이 사회를 맡아 명품 진행으로 관객들을 클래식 세계로 이끈다.

연주회 프로그램 역시 신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인 슈트라우스의 폴카 '천둥과 번개', '트리치 트라치' 외에도 열가 '사랑의 인사',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베토벤 '삼중협주곡', 열가 '위풍당당 행진곡'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희망찬 새해를 기원한다.

이번 무대의 사회를 맡은 연기자 김석훈은 지난 1998년 SBS 드라마 '홍길동'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후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수많은 드라마, 영화 작품에 출연했으며, 연기자로서뿐만 아니라 교양 프로그램 진행과 나레이션 참여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완벽한 기교와 따뜻한 감성을 겸비한 한국 최고의 첼리스트 송영훈은 일본 각지에서 성공적인 협연무대를 가진 후 2013년부터 매년 리사이틀 투어를 갖는 등 클래식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꼽히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는 MBC '복면가왕', JTBC '슈퍼밴드2', 그리고 다수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친근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탁월한 진행능력으로 최근 MBC 'TV예술무대'의 새로운 MC로 발탁되기도 했다.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 피아노 앞에서 자유롭게 펼치는 아이디어와 자유로움을 누리는 연주로 각광받고 있는 박종해는 2019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를 역임했으며 홍콩, 더블린, 퀸 엘리자베스, 클리블랜드 콩쿠르 입상 및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6회 정기연주회

## 신년음악회

1월 1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예술감독 최수열



첼로 심준호

지난해 창단 6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분주한 한해를 보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며 마련하는 2023년 첫 무대로, 고전주의 대표 작곡가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을 시작으로 굴다의 '첼로와 관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들려준다. 특히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는 최수열 예술감독이 작곡가들의 마지막 작품을 소개하는 '6 Last Works' 테마의 첫 번째 무대로, 이후에도 브람스, 말러, 하이든, 라흐마니노프, 슈트라우스의 마지막 작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주와 협연, 실내악, 오케스트라를 오가는 전방위 플레이어로, 강렬하고 거침없는 연주, 깊이 있는 소리와 끊임없는 탐구정신으로 수많은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첼리스트 심준호가 함께 한다. 2010년 쥘네스 뮤지컬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함으로써 유럽을 넘어 세계적인 첼리스트로 부상한 심준호는 2011년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라이징스타로 선정되었고, 2015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하루 만에 완주하며 평단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2012년, 그의 음악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을 결성하여 2015년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을 완주한 심준호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첼리스트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심준호는 이번 무대에서 클래식과 재즈를 아우르는 크로스오버적인 성향과 클래식 연주회의 격식을 깨뜨린 파격적인 무대매너로 자신만의 입지를 구축했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굴다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음악세계가 드러난 '첼로와 관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협연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 2023 신년음악회

2월 2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관객들에게 전하는 새해 첫 인사 '2023년 신년음악회'는 2월 2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거문고 4중주 '출강'을 비롯해 '소나무', '무화' 등 국악창작곡과 희망찬 새해를 노래하는 아리랑 및 민요의 향연, 새해의 밝은 기운을 담아 펼치는 영남성주굿 및 판굿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2023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1월 29일(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2023년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는 525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빈 소년합창단의 무대로 꾸며진다. 세계 최고의 소년합창단 중 하나로 꼽는 빈 소년합창단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국립 오페라단과 함께 빈 궁정악단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전통이 깊은 합창단으로, 지난 525년 역사동안 수많은 음악가들의 숨결을 거치며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함께 해왔다. 프란츠 슈베르트는 소년 시절 합창단원으로 활약했고, 모차르트와 브루크너도 합창단을 지휘하며 이들과 인연을 맺었다. 또한 지휘자 한스 리히터, 펠릭스 모틀, 클레멘스 클라우스, 게오르그 틴트너를 비롯하여 작곡가 하인츠 칼 그루버, 카운테테너 막스 첸치, 테리 웨이 등이 단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그들의 고유한 가창전통은 유네스코(UNESCO) 지정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역사와 음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국과도 깊은 인연을 자랑하는 빈 소년합창단은 1969년 첫 내한공연을 가진 후 지난 50년간 약 35개 도시, 150회가 넘는 무대를 통해 최고의 스테디셀러 공연으로 사랑받아 왔다.

현재 빈 소년 합창단에는 여러 명의 한국인 단원들도 소속되어 있어 내한 때마다 '아리랑', '그리운 금강산' 등 한국 노래들을 부르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한 바 있다. 빈 소년 합창단의 주요 레퍼토리는 교회음악과 가곡, 왈츠가 핵심을 이루지만 현대음악, 팝, 영화음악, 월드뮤직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데, 특히 다양한 음악들을 보이 소프라노에 맞추어 편곡, 소개하면서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며 호응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빈 소년합창단이 수백 년간 불려왔던 성가곡을 비롯하여, 합창단과 인연을 맺은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트라우스의 음악, 영화음악을 비롯하여 빈 소년합창단을 위해 편곡된 세계각국의 음악들까지 전세계에서 사랑받았던 빈 소년합창단을 대표하는 음악들을 모두 선보인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는 보이 소프라노들이 전하는 맑은 음색과 아름다운 화음은 새해를 맞은 관객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의 생애는 참 고단하다. 어떤 면에선 나무보다 더 고단하다. 가기 싫어도 가야하고 눕고 싶어도 눕지 못하는 경우는 오죽 많은가. 내가 안아야 할 상대는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굽고 굳은 등을 다독이며 온기를 나눌 상대는 바로 당신이었다.”

30년전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경남 고성 산골 생활 30년을 담은 시·산문집 <어렵풋, 당신>(헝사곤)을 출판한 동길산 시인을 만났다. 부산 출신인 시인은 대학 졸업후 부산에 취직하였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어 보였었다. 젊은 날 시인의 생각에 돈, 시간, 건강, 이 세가지 중 한가지라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시간이라는 생각에 다니던 직장을 사표내고 그때까지의 가진 돈만큼 산골에 땅을 사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 부자를 선택하였었다. ‘시간 부자’ 너무도 매력적이지 않은가! 처음 10년은 한달 내내 온전히 시간 부자로 산골에 한달내내 머무르며 책 읽고, 글 쓰고 산책하며 온전히 시간 부자로 생활하였으며, 이후 10년은 한달에 절반, 최근 10년은 한달에 열흘을 산골에서 지낸다고 한다.

“손님 뜬한 산골에서 햇살은 귀한 손님이다. 먼 걸음 해줘서 그렇고 함께 있으면 밝고 따뜻해서 그렇다.”

산골 생활 30년에 그는 산골의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뀌었으며 시간 부자에서 건강까지 부자가 되었다. 돈 부자가 되지 않음을 스스로 느낀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력의 남다름이 지금의 넉넉한 시인으로 거듭나는 힘이 되었다. 자연에 동화되고 자족할 수 있는 힘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뒤돌아보면 생활비 적게 들고 글과 함께 자연 속에서 살던 젊은 그때가 가장 행복하였다”며 웃음 짓는 모습은 책을 손에 들고 나타났던 그의 인상과 너무 닮아 있었다.

## 그대를 \_\_\_\_\_ 기다리는 시간 그대를 \_\_\_\_\_ 만나는 시간

‘어렵풋, 당신’  
시인 동길산을 만나는 시간

정두환 문화유목민, <예술의초대> 편집위원

이번 책을 내게 된 동기는 <예술의 초대>에 2019년 8월부터 연재한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가 계기가 되었다. 시 한편과 한편의 시가 나오는 과정을 산문으로 풀어준 그의 따뜻한 시선. 하지만, “<어렵풋, 당신>은 1992년 고성에 이사 갔을 때 만난 동갑내기 노충현 화가와의 약속을 30년 만에 지킨 것입니다.” 그의 책은 시와 산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장 사이 사이 28편의 그림이 함께 수록되어 그림이 함께한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우리 동갑내기니 내가 글을 쓰고 너는 그림을 그려서 같이 책을 내면 되겠다”면서 젊은 날 같은 생각으로 의기 투합하였고, 각자의 세계를 살아가던 중 이번엔 함께 하였다.

*“바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처마 끝에 풍경을 매달니다  
 당신이 다가오는 소리 들으려고  
 마음 끝에 풍경을 매달니다”*

<예술의 초대> 2019년 9월 연재한 첫 시 '처마는 멀고 마음은 가까워도'의 한 구절이다.

*“내가 생각하는 당신은 어디서 오는가.  
 언제 오는가. 첩첩을 이룬 산과 산 사이 셋길로 오는가,  
 감나무 이파리가 제 무게 겨워 흔들릴 때 오는가.  
 지금보다 초록이 더 진해져서야 셋길을 지나  
 나뭇잎 사이로 마침내 당신은 오는가.  
 처마는 멀고 마음은 가까워도 소리는  
 매번 멀리서 난다.”*

삶이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토록 푸르른 글이 나오는가. 치열함을 몸으로 삶을 느끼는 그의 글은 독자들로 하여금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안내한다. 삶에서 언어는 자기를 보는 거울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한다. 그래서일까? 시인은 산골을 산책하면서 만나는 무덤에게도 이야기로 인사를 한다. 볼 때 “좋은데 계시네요”라며 한번 인사하고, 벗어날

때 “또 뵙겠습니다. 따뜻하게 계세요”라며 인사를 한다. “말하지 않으면 당신이 어떻게 알겠는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라며 특유의 넉넉한 미소를 짓는다.

그는 동어반복을 자주한다. 하지만, 그만의 약속이 있다. 1. 문체의 속도와 강조일 때, 2. 두번이상 사용하는 것을 자제한다. 3. 짧게, 현재형으로 한다. 그리고 남보다 먼저 웃지 않기를 고집한다. 이유를 물으니 작가는 독자의 입장에서 글쓰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한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단한 삶의 연속이지만,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 생각하면서 그는 웃음으로 글을 짓는다. <어렵풋, 당신>에서는 그의 시 기편과 기편의 산문과 더불어 28점의 노충현 화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글을 읽고 그림을 만나는 내내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를 만나고 헤어진 뒤 그와의 짧은 만남이 더욱 그리워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누군가에게 넉넉한 사람, 푸근한 사람, 그의 글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꽃 뿔다고 동백 가까이 간 적은 거의 없다. 동백 가까이 가도록 한 건 거의가 떨어진 꽃. 떨어진 꽃을 자세히 보려 가까이 갔고 마음이 별장게 젖어서 가까이 갔다.”*

# 행복을 바라는

## 그림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연말연시가 되면,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한 희망을 품으며 즐겁게 지낸다. 캐럴이 들리고 건물과 거리를 형형색색 수놓은 불빛이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그리고 예쁜 그림이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지인에게 보내기도 하고, 모바일 메시지로 따뜻한 말과 함께 재미있는 짧은 영상을 보내기도 한다. 그 안에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말이다. 여기엔 미술사에서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작품이 아닌, 주는 이의 마음과 받는 이의 행복을 기원하는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담길 것이다. 어쩌면 예술은 역사적이거나 사회적 가치를 떠나서 행복한 마음을 담기도 하기에, 인간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창조물일 지도 모른다.

### 순수한 감상을 위한 예술

우리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러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가곤 한다. 대개 흰 벽에 그림이 띄엄띄엄 걸려있다. 한 작품씩 감상자가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용한 전시 공간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음미하듯이 찬찬히 바라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그 작품을 바라보기만 할 뿐 직접 만질 수는 없다. 예술작품

은 그 자체만으로 범접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보내온 작품이 바래거나 손상이 되면, 전문적인 복원사들이 작품을 최대한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기도 한다. 그렇게라도 해서 예술작품이 영원히 변치 않는 시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영원하게 가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인이 생각하는 순수예술이다. 이는 문학이나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그림은 그저 순수하게 시각적 즐거움만을 주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경우도 많았다. 나폴레옹의 대관식과 같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집트 피라미드의 벽화처럼 죽은 이의 내세를 기원하기도 했다. 그리고 성당의 제단에 설치된 성화를 통해서 신도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었고, 불당에 그려진 지옥도를 보면서 극락에 가길 빌기도 했다. 조선의 궁중에서는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일월오봉도>가 옥좌 뒤에 놓였고, 왕실 여인들의 아름다운 궁에는 내부를 장식한 모란도 병풍이 놓이기도 했다. 네덜란드의 풍경화는 상인의 저택을 장식했고, 동양의 산수화는 선비들의 와유(臥遊)



1 크리스마스 카드(<https://www.publicdomainpictures.net/>출처)

遊)를 위한 그림이었다. 이렇듯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순수한 감상을 위한 예술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확고히 형성된 개념일 뿐, 이전에는 그림 역시 제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크리스마스 카드의 그림처럼 말이다.<sup>[도판 1]</sup>

### 액운을 막고 새해에 복을 비는 우리 그림

크리스마스 카드로 즐거운 연휴와 행복한 새해를 기원한다면, 조선에서는 문배도(門排圖)와 세화(歲畵)가 있었다. 문배도는 정월 초하루에 궁궐 정문에 붙여 액운, 즉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바라는 의미로 붙인 것이다. 궁정의 도화서에서 연말에 그림을 그려서 왕에게 바치면, 이를 궁궐의 문에 붙이고 신하에게 하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배도에 대해서는 기록만이 존재할 뿐 실물을 찾기는 힘들었다. 그런데 2015년에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자료 중 문배도가 붙어있는 경복궁의 광화문 사진<sup>[도판 2]</sup>이 발굴되면서 어떤 그림이 어떠한 방식으로 부착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진 속 문배도가 학서 류이좌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하사받은 <금갑장군(金甲將軍)> 그림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제작되었다. 그리고 이를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액운이 물러가길 바라는 의미로 2021년에 광화문에 붙였다.<sup>[도판 3]</sup> 금갑장군은 당태종이 귀신을 무서워하자 그 옆을 지켰던 장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문배도로 금갑장군이 그려졌다는 것은 조선 중기 기록에도 남아있다. 그러한 점에서 조선 시대 중후기에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금갑장군이 새해에 액운을 막는 이미지로 사용되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신라 시대부터 처용도나 중국의 유명한 문신의 이미지가 표현되기도 했다. 그리고 1867년 간행된 『경국대전』 중 『육전조례』의 '진상조에 보면 화원들이



2 일제 강점기의 광화문 사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출처 조선일보)  
3 2021년에 복원된 문배도(문화재청 출처)

각 전과 궁에 진상할 문배와 각 문에 붙일 그림을 매년 초에 바쳤다고 기록이 되어있다. 그러한 그림에는 닭이나 호랑이 등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배도는 종이에 그려져서 문이나 벽에 풀로 붙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물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매년 궁정과 사대부에서 이루어지다가 조선 후기에는 민간으로 전해져 민화로 표현되면서, 그 모습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 중 액운을 막기 위해 민간에서 많이 그려졌던 도상으

로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익숙한 호랑이와 까치의 모습이다.<sup>[도판 4]</sup> 그 연원에 대해서 우리 민족 자생의 해학적 이미지라 말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그 시자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랫동안 친근한 이미지의 호랑이와 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까치가 함께 있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그려져 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치 고양이 같다고 여겨질 정도로 귀여운 모습임에도 호랑이는 전염병이나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이미지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민간에서 궁정까지 다양한 장소에 부착되었다.

이렇듯 액운을 막고 복을 비는 문배 풍속과 함께 이루어진 그림이 있다면, 새해가 되면 궁정에서 신하에게 하사하는 세화도 있었다. 세화는 주로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제작되는 것이므로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도>나 <신선도>, <모란도> 등이 제작되었다. 고려 말에 목은 이색이 <십장생도>를 하사받기도 했고 조선 후기 양주익이 정조로부터 신선도의 일종인 <남극노성도>를 하사받은 등, 매년 궁정에서는 대신에게 세화를 하사하였다. 현재에도 전통 채색화의 대표적인 도상이기도 한 <십장생도>는 장수하는 열 가지를 그림에 담은 그림이다.<sup>[도판 5]</sup> 해, 산, 물, 돌, 소나무, 구름(혹은 달), 불로초, 거북, 학, 사슴으로, 자연물이 가지는 속성과 설화에서 유래한 뜻이 이를 지니는 사람에게도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4 <호랑이와 까치>, 연대 미상(조선), 종이에 먹과 채색, 134.6×80.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

5 <십장생도 병풍>, 연대 미상, 견에 채색(병풍), 350.4×187.5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6

6 <문자도(文字圖)-의, 예, 신, 충, 제>, 연도 미상, 종이에 채색, 각 103×39.5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행복을 바라는 길상화

문배도나 세화의 전통은 지금은 잊혔다. 간혹 입춘 즈음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이라 적은 방을 대문에 붙이면서 한해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정도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하지만 옛 기록이나 민화에 남아 있는 문배도의 흔적을 따라, 좋은 의미를 지닌 그림을 새해에 서로 주고받는 풍습을 되살리면 어떨까? 특히 조선의 민화에는 ‘길상화(吉祥畵)’라 불리는 좋은 의미를 가진 이미지가 담긴 그림이 많다.

신혼인 집에는 다산을 의미하는 석류나 참외 그림으로 아이 갖기를 기원하며,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장수의 의미를 담은 소나무 그림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림뿐 아니라 가구, 침구의 자수 등에는 박쥐 문양을 넣어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박쥐를 의미하는 ‘편복(蝙蝠)’이 ‘복(福)’과 발음이 같다는 점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출세를 기원하는 의미로 잉어를 그리기도 했는데, 이는 잉어가 황하를 거스르다가 상류의 용문을 뛰어오르면 용이 된다는 중국의 설화인 ‘어변성룡(魚變成龍)’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모란과 금계, 금붕어는 부귀영화를, 화

조와 원앙, 기러기 등은 부부의 금실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한자어의 비슷한 발음이나, 그 형태나 자연에서의 모습 등에서 유래한 좋은 뜻을 담은 이미지들이 화려한 채색과 개성있는 형태로 궁궐에서부터 사대부거나 민간에서도 그려졌다. 그 중 <문자도>는 인간이 지켜야 할 대표적인 덕목에 대한 한자를 관련한 이미지와 함께 어우러지게 표현한 것이다.<sup>[도판 6]</sup> 그리고 이러한 복된 이미지를 새롭게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도 적지 않다.

궁정에서 신하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그리고 나라의 액운을 물리치기 위해 그림을 보내고 붙였듯, 그리고 오래전 조상들이 지인과 가족을 위해 복된 그림을 주고받은 것처럼, 우리도 염려하고 아끼는 이를 위해 좋은 그림을 선물하면 어떨까? 비단 전통 그림의 복제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좋은 의미를 담으면서도 우리의 미감에 맞게 변용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조금 정성을 들여, 그러한 이미지를 간단하게나마 그림으로 그려서 사랑하는 이가 꽃길을 걷기를 기원해주어도 좋을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도 삽입된 그림을 통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

평범하지 않은...

NO ORDINARY OPERA,

#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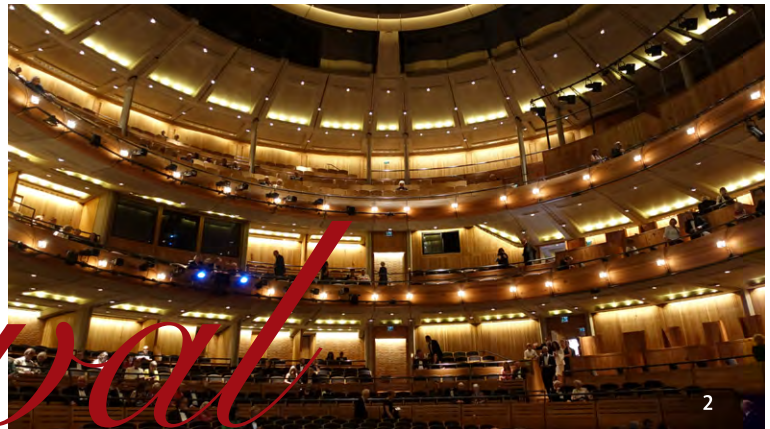
GLYNDEBOURNE  
FESTIVAL

글, 사진\_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Glyndebourne*



글라인드본(Glyndebourne)은 영국 서섹스(Sussex) 지방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이다. 이 오페라하우스는 흥미롭게도 1934년 설립자 존 크리스티(John Christie)가 소프라노 오드리 밀드메이(Audrey Mildmay)를 만난 러브 스토리에서 시작되었다. 서섹스 지방에 영지를 가진 영주이자 부호였던 크리스티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만든 오페라하우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특색있는 오페라하우스 중 하나로, 여름 축제와 가을 투어, 연중 계속되는 학습 및 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5만명 이상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2 글라인드본 오페라하우스 외부와 내부

글라인드본 페스티벌(Glyndebourne Festival) 초기 몇 년은 모차르트의 광범위한 오페라 작품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이곳과 오랜 인연을 나누었던 영국인 오페라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Benjamin Britten),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조아키노 로시니(Gioachino Rossini) 등 다양한 작곡가의 작품을 포함하도록 점진적으로 확장되었다.

초기의 글라인드본 극장은 300석 규모로 지어졌는데 이후 몇 년 동안 더 많은 관객을 수용하기 위해 여러 차례 확장되고 개선되었다. 이는 글라인드본에서 오페라를 만나고 싶은 관객들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함인데 1977년에는 객석 수 850명을 수용하는 극장으로 성장했다. 1986년 오페라하우스 내 교육부서가 설립되고, 서섹스 및 인근 켄트(Kent) 주변의 지역 사회 및 학교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글

라인드본은 훨씬 더 큰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결국 1994년 1,200석 규모의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가 지어졌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작품으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Le nozze di Figaro)’이 공연되었다.

오늘날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에서는 120회가 넘는 라이브 오페라 공연으로 연간 약 150,000명의 관객과 만나고 있다. 영감을 주는 음악감독과 연출자, 세계적 수준의 오케스트라 및 연주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새로운 작업을 의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뉴욕 MET 메트로폴리탄과 같이 온라인 스트리밍과 같은 디지털 혁신과 함께 청중에게 새롭게 다가가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건 글라인드본은 극장 운영에 있어 탄소 중립이 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적인 모든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에는 오페라하우스의 자가 발전을 위한 자체 풍력 터빈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는 기후 변화의 영향과 화석 연료의 공급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에 대한 직간접적 영

향을 최소화하며 글라인드본의 행보가 동종 업계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장려함과 동시에 업계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코로나가 한창인 가운데 2021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과 함께 글라인드본은 글로벌 제로 경쟁에 합류하여 다음 내용을 약속하기도 했다. 2030년까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제로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발표, 새로운 환경 조치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유지하여 총 탄소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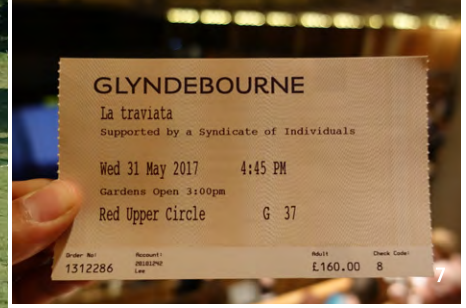
이 모든 사업들을 수행하는 재원을 글라인드본의 경우 일체의 공적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다. 축제 운영은 전적으로 티켓 판매와 회원, 기부자의 지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축제를 통한 지역 참여 프로그램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놀랍다. 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에 다가설 수 있는 동기와 목표를 둔 글라인드본의 정신이기도 하다.



3 글라인드본 축제에는 엄격한 전통의 드레스코드가 있다 4 영국식 정원 한가운데에서 열리는 글라인드본 축제 5 축제에서 즐기는 피크닉



6



8

6 공연 인터미션 시간에 즐기는 피크닉 7 글라인드본 축제의 티켓 8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커튼콜

## 글라인드본 축제(Glyndebourne Festival)

매년 여름 5월부터 8월까지 글라인드본 축제(Glyndebourne Festival)가 개최된다. 관객들이 영국식 정원 한가운데 놓여있는 특별한 오페라하우스에서 수준 높은 작품을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오페라 축제 플래그십 시즌이다. 기부금을 내는 회원은 티켓 발권에 있어 우선 예약이 가능하며 일반 회원은 매년 3월 중 티켓팅이 가능하다. 축제 중에는 예복의 전통을 엄격히 지키는 드레스코드가 있으며 관객들은 오페라를 즐기는 하루 동안 특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다.

글라인드본 축제의 핵심은 90분 가량 주어지는 인터미션 시간에 있는데, 오페라하우스를 중심에 두고 펼쳐진 영국식 정원에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오페라 하우스 내 레스토랑 3곳 중 한 곳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피크닉 문화가 익숙치 않은 우리에게는 낯선 풍경일수 있지만, 오페라와 함께하는 피크닉은 글라인드본 축제만의 매력이다. 가을 투어 공연은 축제보다 더 캐주얼

한 드레스코드와 더 짧은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방문객들이 공연 시작 시간에 따라 공연 전후에 오페라하우스 내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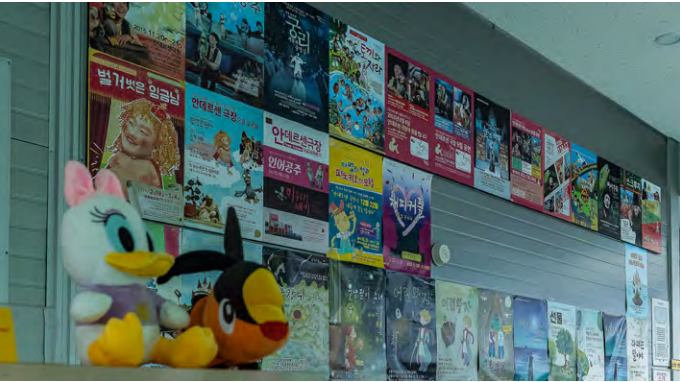
## 온 스크린(On Screen)

글라인드본은 오페라의 기쁨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글라인드본 앙코르(Glyndebourne Encore)를 통해 구독자에게 주문형으로 오페라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라이브인 더 메트 라이브(The Met Live)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디지털 콘서트(Digital Concert)와 같다. 또한 매년 여름 글라인드본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장 인기있는 작품을 선보이는 무료 오페라 스트리밍 서비스인 글라인드본 오픈 하우스(Glyndebourne Open House)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전세계 오페라 팬들과 보다 가깝게 만나는 방법임과 동시에 역사의 커를 쌓아가는 글라인드본의 아카이브이기도 하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나라의 경계와 세대의 차이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덴마크의 동화작가이다. 미운오리새끼를 모르는 어린이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벌거벗은 임금님은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풍자의 단골 소재다. 추운 겨울날에는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를 읽으며 내 손까지 얼어가는 느낌을 받았겠지. 말하지 못하는 인어공주의 사랑이야기는 또 동상으로 남아 코펜하겐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세계의 많은 도시에도 모사품이 넘쳐난다. 200년 세월을 건너뛰어 큰 사랑을 받는 안데르센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생애동안 몇 안되는 이성 혹은 동성에게 프로포즈를 했으나 거절당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한다. 그런 과정들이 동화에 어울리지 않는 우울한 이야기들로 재현되기도 했고, 그것이 또 호평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핍이 창작의 양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기쁨이 좋은 것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슬픔의 재료가 꼭 악재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기장군 장안읍 도예촌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안데르센극장은 덴마크의 그 안데르센 작가의 이름을 딴 어린이청소년 전용극장이다. 해마다 1~2편씩 안데르센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창작극을 만들어 올리고 있으며, 그 외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작품을 계속 창작해 공연하고 있다. 한 해동안 7~8편의 창작극을 계속 만들어내고 공연하는 것은 보통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터라 들여다보니 30년 전통의 극단 자유바다가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극장 운영은 자유바다가 하는데 재원은 기장군이 대고 있다. 기장군의 강력한 뜻으로 안데르센극장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공연이 무료로 열리고 있는 점도 놀랍다. 때문인지 안데르센극장의 242석은 공연마다 티켓을 오픈하는 날에 매진되고 있어, 관람을 위해선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료공연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많아서 향후 변경될 여지는 있으나, 기장군의 지원은 계속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을 위해 큰 마음을 쓰는 것이라 고마운 일이다.

어린이인권선언 100주년을 기념한 창작극 <선물>을 선보이며 소파 방정환을 소환했고, <마법의 성과

피노키오의 모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상상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기장군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극으로 풀어낸 <철마장군을 불러라>, 안데르센의 대표작 <벌거벗은 임금님> <성냥팔이소녀> <바보 한스> 등도 강혜란 대표와 정경환 연출가의 손에서 새롭게 각색되어 선보여졌다. 레퍼토리가 많아질수록 안데르센극장은 더욱 활기차고 다양하게 공연을 펼칠 수 있으리라. 어린이청소년국제영화제와의 교류로 출품작 몇 편이 안데르센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코로나가 풀리면 어린이연극교실도 열어볼 예정이라 하니, 귀를 쫑긋 세우고 소식을 기다려볼 일이다.

도예촌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하듯이 장안읍 기룡리 산126번지 일대 54,000평은 기장지역에 활발하게 만들어지던 도자기를 복원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었다. 작가들이 모여 옛흔적도 발굴하고 기장도자기의 명맥을 이어가자는 의지였으나 뜻대로 되지는 않은 듯하다. 안데르센극장도 2015년 개관이후 군의회와의 엇박자, 위탁운영자 스캔들 등 여러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극단 자유바다가 운영을 맡으면서 더 탄탄한 토대를 이룬 느낌이다. 현재 안데르센극장만이 광활한 부지를 섬처럼 지키고 있지만 곧 안데르센 동화마을도 조성될 예정으로 한창 공사중이다. 안데르센의 고향 덴마크 옌센세의 동화마을과 MOU를 통해 지적재산권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공연도 보고, 동화속 캐릭터들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멋진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픔이 꼭 새드앤딩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닐터, 안데르센 극장이 더욱 더 튼튼하게 자라나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공간이기를 바라본다.

**문의 안데르센 극장 051-728-3909, 3709, www.www.gijangandersen.org**



# INVITATION TO THE ARTS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옴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SM아트홀	1600-1602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 ●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갖춘 월드클래스 쇼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가 부산을 찾는다.**

뮤지컬의 도시 브로드웨이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시골 출신 '폐기 소녀'가 브로드웨이 댄서가 되기 위한 꿈을 향한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지난 1980년 뉴욕 윈터가든에서 초연되었을 당시,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11번의 커튼콜이 이어졌으며, 이후 3,486회 연속 공연이라는 당시 획기적인 장기 공연 기록을 수립하고 지금까지도 브로드웨이에서 5,000회 이상 공연되며 전 세계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1996년 초연된 이후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특히 2017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는 올해의 뮤지컬 상을 수상하며 이제는 뮤지컬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막이 오르는 순간, 압도적인 탭 댄스 군무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경쾌한 스윙 음악과 리드미컬한 탭 댄스, 싱크로나이즈드 댄스에 왈츠 안무까지 주 조연부터 수많은 앙상블들이 보여주는 질서정연한 칼군무는 관객들을 압도하고, 화려한 조명과 무대 연출에 의상이 더해져 장관을 이룬다. 특히 공연 한 편이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

주는 '백 스테이지 뮤지컬'로, 마치 브로드웨이 42번가의 화려한 극장에 실제로 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선사한다.

국내 초연 26주년을 맞이한 이번 무대에서는 더욱 더 화려한 라인업으로 부산 관객들을 만난다. 역대 42번가를 빛낸 배우들뿐만 아니라, 신예 스타들의 캐스팅으로 색다른 조합과 케미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브로드웨이의 카리스마 넘치는 최고 연출가 '줄리안 마쉬' 역에는 2016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송일국과 중후한 매력으로 여심을 사로잡는 꽃중년 이종혁이 함께 한다. 한 때 최고의 뮤지컬 스타였지만, 지금은 그 명성을 잃은 프리마돈나 '도로서 브록' 역에는 데뷔 25년 만에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강력한 내공을 뽐어내는 배우 정영주와 지난 시즌 도로서와 완벽한 싱크로율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배해선, 뮤지컬 '레베카', '웃는남자', '명성황후' 등 대작들에 출연하여 완벽한 소화력으로 인정 받는 신영숙이 새로운 도로서 브록으로 합류한다. 작가이자 폐기 소녀의 재능을 알아보는 극단의 멤버인 '메기 존스' 역에는 초연 멤버이자 최다 배역, 최다 출연자 타이틀의 주인공 전수경과 지난 시즌 메기 존스로 분해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홍지민이 함께 한다.

**일 시** 2월 3일(금) 오후 7:30, 4일(토) 오후 2:00, 7:00, 5일(일) 오후 2: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4만원, OP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8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 끝맺지 못하거나 끝이 없거나

우물가 살인사건-  
그 곳엔 사람이 산다

◆ 이상현 춤 비평가

지난 12월 2일, 3일 (재)부산문화회관이 주최한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에 선정된 <우물가 살인사건-그 곳엔 사람이 산다(이하 우물가 살인사건)>(안무 박재현)이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랐다. 은유로 가득한 중의적인 이 작품을 시간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읽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물가 살인사건>을 하나의 사건 이야기로 볼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90분 동안 31명의 출연자가 만들어 내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미지는 모호한 의미를 계속 만들어갔다. 안무자가 작품을 2막에 걸쳐 6개 챕터로 나누고 짧은 해설을 붙여 두었지만,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중황으로 움직이는 시간과 우주에서 점까지 펼쳐지는 이야기 사이에서 뚜렷한 흐름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기껏해야 우주와 점의 공통점이 둘 다 확산과 수렴을 동시에 품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 같은 단편적인 추측만 할 뿐이었다.

박재현은 작품의 모티브를 금정구 오륜동에 있는 회동수원지의 역사에서 얻었다고 한다. 회동수원지는 일제 강점기인 1940년 양수 확보를 위해 조성한 인공 저수지이다. 당시 주민들은 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는 것에 반대하며 농기구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경찰력을 앞세운 일제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수원지 준공 테이프를 끊을 때 한 농민이 “그 가위는 우리 농민들의 창자를 자르는 가위요, 수원지 물은 우리 농민들의 피눈물”이라고 울부짖었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즐기는 회동수원지의 수려한 풍광은 마을 사람들이 겪은 비극의 대가이다. 회동수원지의 비극은 우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물은 수몰당한 마을 공동체의 상징이



며, 마을 사람들은 수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부유하는 삶을 살아갈 운명에 떠밀렸다.

박재현은 회동수원지의 비극을 ‘우물가 살인사건’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벌어질 만한 사건으로 은유하면서 한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우리 삶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일로 보편화한다. 그 사건은 거룩하거나 경쾌하고, 비장하면서 가볍고, 비탄에 빠진 절규이면서 환희의 순간이기도 한 모든 순간이며,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작고 외로운 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물가 살인사건>은 지금 이 땅의 상황이다. 좀 더 폭을 좁혀 ‘우물’을 몇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마을의 우물은 안정적으로 식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이며 마을의 이야기가 모이고 퍼지는 곳이다. 개인도 각자의 ‘우물’이 있다. 그 우물은 자신만이 길어 올리는 가치가 담긴 곳인 동시에 세상을 보는 인식의 한계이기도 하다. 박재현은 이것을 ‘누구나 작은 우물가를 가지고 산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우물(가)에 ‘작은 핑계로 스스로 옥죄어 가두지 않았다.’라는 질문을 던진다. 즉, 우물을 정체성과 자아의 갈등이 일어나는 심리적 근원으로 보는 것 같다.

작품 중간마다 위(하늘)에서 5개의 돌이 떨어진다. 누군가(가 해자) 연못(우물)에 던진 돌이다. ‘돌 하나가 우리에게 떨어졌다. 작은 연못 물 하나 튀었을 뿐인데 모두 난리법석이다(공연 팸플릿 내용) 돌이 떨어지면 평온한 연못에 물방울이 튀고 물결이 일렁이면서 연못의 차원이 달라진다. 그 순간은 챕터가 바뀌는 구분 점이고,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구분 점이며 전환점 역할을 하는 돌은 흐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은 언제나 그러하듯 선형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기보다 징검다리를 건너듯 읽는 것이 편하다. 그래야 박재현이라는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관객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돌 사이로 흐르는 물결이 일으키는 현기증을 견디며 조심스레 발을 내디뎌야 하는 징검다리 건너기처럼 관객은 불규칙하게 놓인 돌중에 자신이 디딜 수 있는 것을 찾아 디뎌야 한다.

1막에서 오직 한 점으로 이어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미지 아래 둥글게 누운 사람들은 ‘우물’이며 물결이다. 점점 속도를 높이며 회전하는 나뭇가지는 혈액 속 염분 농도가 증가해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은 긴장을 조성한다. 그러나 ‘사건’은 더 이상 구체화하지 않고, ‘비탄’, ‘점’, ‘문득’, ‘통곡’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점’으로 환원한다. 확산하고 환원하는 이야기에 는 공통으로 ‘반복’이 있다. 작품에서 반복은 강조이면서 순환이다. 반복하면서 생기는 미묘한 차이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클라이맥스로 달리기 위해 동작의 반복으로 감정을 쌓아 무대 에너지를 끌어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 작품에서 동작의 반복은 강조, 순환, 차이, 에너지 축적 효과를 모두 가져온다. 그런데 전작들과 달리 반복으로 축적한 에너지를 마지막에 감성적으로 폭발시키는 박재현 특유의 마무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 <우물가 살인사건>은 끝맺음이 분명하지 않다. 어쩌면 끝맺지 못했을 수 있다. ‘우물가 살인사건’이 애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결론이나 결말이 명쾌할 수 없다. 실제 박재현은 공연 팸플릿에서 ‘과연 작품의 끝은...’이라고 표기하는 식으로 줄임표를 사용한다. ‘우물가는 처음부터 하늘이었다. 그대가 보는 세상 그대로 세상이다’라고 말하면서, 끝을 맺기보다 그렇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열어둔다.

작품에 가득한 박재현식 클리셰(cliché)마저 결말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반복하는 움직임과 대사와 춤의 의미를 중첩하는 방식은 오히려 작품의 극적 완결을 비껴가게 하면서 그만의 카오스모스를 만들어 낸다. 이런 ‘낮선 클리셰’ 혹은 ‘클리셰의 낮선 사용’은 박재현 작품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관객이 언제쯤 박재현의 안무적 클리셰를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리를 좁힐 수는 있겠지만, 결코 손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끝없이 탈주하는 예술가와 결코 뒤쫓지 못하는 관객의 불화가 만들어 내는 끝없는 오해와 오역이 기묘한 운명적 불화로 부산 춤판을 들썩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재현의 존재 가치는 이러한 화해 불가능성에 있다. <우물가 살인사건>은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작품이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3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일 시 | 1월 3일(화)-17일(화)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중극장· 챔버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정상급 연주자들의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실내악의 향연이 펼쳐지는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매년 화려한 라인업과 풍성한 레퍼토리로 정통 실내악의 감동을 선사하며 부산 클래식 공연의 위상을 높여왔다.

**1월 3일(화) 오후 7:30 중극장**

**[개막연주회] All that Chamber music**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공연은 뉴욕 필하모닉,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미국 퍼시픽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리더들이 펼치는 실내악 앙상블 무대. 한국초연곡인 웨리던 사이프리의 '클라리넷, 현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6중주'를 비롯하여 슈베르트 '현악5중주 작품 956', 멘델스존 '현악8중주 작품 20'을 들려준다.

- 바이올린/데니스 김, 미셸 김, 김동욱, 조혜운
- 비올라/최영식, 배은진
- 첼로/요나 김, 벤자민 휴즈
- 피아노/선 케너드 • 클라리넷/백동훈

■ 입장료/R석 3만원, S석 2만원

**1월 4일(수) 오후 7:30 챔버홀**

**Trio Barclay : The Essentials of Piano Trio & Quintet**

바이올리니스트 데니스 김과 첼리스트 요나 김, 피아니스트 선 케너드로 구성된 바클레이 트리오의 무대로, 바이올리니스트 미셸 김, 비올리스트 최영식과 함께 독창성과 서정성이 만개한 브람스 실내악의 최고봉 '피아노 5중주 작품 34'와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트리오 제2번 작품 67', 드 보르자크 '피아노 트리오 제4번 작품 90'을 들려준다.

■ 입장료/전석 2만원

**1월 7일(토) 오후 5:00 챔버홀**

**Busan's Culture & Future**

부산의 차세대 문화를 이끌어 나갈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실내악팀과 함께 올해부터는 부산을 넘어 한국의 K-클래식을 이끌어갈 부산예술중학교 실내악팀도 참여한다.

■ 입장료/전석 1만원

**1월 10일(화) 오후 7:30 챔버홀**

**3인 3색(三人三色) in Busan**

부산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빌레 클라리넷 앙상블과 KNN 앙상블, 앙상블 아도의 무대.

■ 입장료/전석 2만원

**1월 12일(목) 오후 7:30 챔버홀**

**로젠슈타인 현악4중주(Rosenstein String Quartet)**

독일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과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단원들로 구성된 로젠슈타인 현악4중주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후기 낭만주의 헝가리 작곡가인 엠마누엘 무어의 '현악4중주를 위한 전주곡과 푸가', '현악4중주를 위한 서정 소곡집 작품 139'를 한국 초연으로 들려주며, 차이콥스키의 현악6중주 '플로렌스의 추억'을 비올리스트 황여진, 첼리스트 홍승아와 함께 연주한다.

■ 입장료/전석 3만원

**1월 14일(토) 오후 5:00 챔버홀**

**The Variety of Chamber Music**

현악과 피아노, 성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로,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오, 첼리스트 김지영, 피아니스트 조민현, 김성주, 소프라노 양송미와 동백유랑단이 함께 연주한다.

동백유랑단은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비올리스트 가영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클래식 아티스트와 국악 명인으로 구성된 크로스오버 월드 뮤직 프로젝트 앙상블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헨델과 브람스의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피아졸라의 탱고, 켈트 민요, 러시아 민요 등 다양한 월드뮤직을 들려준다.

■ 입장료/전석 2만원

**1월 17일(화) 오후 7:30 챔버홀**

**[폐막연주회]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with 피아니스트 심희정**

부산의 티켓파워 1위를 자랑하는 스트링 앙상블인 앙상블 코스모폴리탄의 폐막무대.

지난 2010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인 이일세 음악감독을 중심으로 창단된 후 그동안 바로크에서 현대음악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제주대학교 교수인 피아니스트 심희정과 함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4번 작품 491'에 이어 이일세 편곡의 슈베르트 현악4중주 '죽음과 소녀'를 들려준다.

■ 입장료/전석 2만원



**2023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with 지브리 스튜디오 OST**

일 시 | 1월 3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8만8천원, R석 6만6천원  
 S석 4만4천원, A석 3만3천원

문 의 | (주)실버트레인 1588-8919



2023.01.03 (화) 오후 7시 30분  
 문의 1588-8919

'Last Carnival', 'Long Long Ago' 등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의 3인조 뉴에이지 그룹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일본을 대표하는 뉴에이지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츠루 노리히로가 리

더로 있는 어쿠스틱카페는 서정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곡들을 연주하여 한국에서도 많은 팬층을 갖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들의 명장면 사운드트랙과 더불어 츠루 노리히로와 어쿠스틱카페의 초창기 피아니스트였던 나카무라 유리코가 음악감독과 작곡가로 참여한 작품 '별은 산 날' OST를 특유의 감성으로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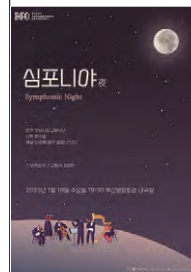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아夜**

일 시 | 1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6회 정기연주회를 공연 전 날 미리 만날 수 있는 부산시향의 심포니아夜.

이번 무대는 연주 시작 전 음악칼럼니스트로부터 연주곡에 대한 에피소드와 해설을 통해 교향할 무대를 더욱 깊이 감상할

수 있어 음악학도와 클래식 매니아층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최수열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CPBC FM '이준형의 비온드 클래식' 진행자로 활동하는 음악칼럼니스트 이준형이 해설을 맡아 드보르자크의 마지막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에 대한 곡의 이해를 돕는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6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해 창단 60주년을 맞  
아 그 어느 해보다 분주한  
한해를 보냈던 부산시립  
교향악단이 새로운 100  
년을 내다보며 마련하는  
2023년 첫 무대.

고전주의 대표 작곡가 베  
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을 시작으로  
굴다의 '첼로와 관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드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들  
려준다.

특히 드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는 올해로 마지막 시즌을 맞은 최수열 예술감독  
이 작곡가들의 마지막 작품을 소개하는 '6 Last  
Works' 테마의 첫 번째 무대로, 이후에도 브람스,  
말러, 하이든, 라흐마니노프, 슈트라우스의 마지막

작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주와 협연, 실내악, 오케스트  
라를 오가는 전방위 플레이어로, 강렬하고 거침  
없는 연주, 깊이 있는 소리와 끊임없는 탐구정신  
으로 수많은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첼리스  
트 심준호가 함께 한다.

심준호는 이번 무대에서 클래식과 재즈를 아우르  
는 크로스오버적인 성향과 클래식 연주회의 격식  
을 깨뜨린 파격적인 무대매너로 자신만의 입지를  
구축했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굴다의 독특  
하고 개성적인 음악세계가 드러난 '첼로와 관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협연한다.

### 프로그램

베토벤/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굴다/첼로와 관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드르르자크/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 지휘/최수열(예술감독)
- 첼로/심준호



## 히사이시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3

**일 시** | 1월 28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문 의** | 라이브러리컴퍼니 070-4190-1289



현존하는 최고의 영화&  
애니메이션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히사이시 조의  
영화음악으로 꾸며지는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  
서트 2023년 무대.

지브리 스튜디오의 모든  
애니메이션 음악을 담당  
한 히사이시 조의 영화음

악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시작으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마  
녀 배달부 키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지  
브리 애니메이션의 OST를 70인조 풀 편성 오케  
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 지휘/김재원 • 바이올린/김영준
- 오보에/고관수 • 첼로/배성우
- 연주/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이야기가 있는 피아니스트 정소윤 토크 콘서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단편

**일 시** | 1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A석 3만3천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다양한 색채와 섬세한 감  
성을 지닌 연주자로, 그동  
안 독주 및 실내악 연주자  
로, 교육자로 활발한 활동  
을 펼친 피아니스트 정  
소윤이 마련하는 이야기  
가 있는 토크 콘서트.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석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 과정 1호로 재학 중 도미, 클리브  
랜드 콘서바토리, 인디애나 음악대학에서 최고연  
주자학위를 취득한 정소윤은 귀국 후 서울대학교  
음대 전체수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소윤은 후학양성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일환  
으로, 클래식 최고의 유튜브 채널 '또모'의 교수  
진으로 참여했으며, 피아노 전공자와 비전공자,  
입시생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 2023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29일 일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525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빈 소년합창단  
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  
라, 빈 국립 오페라단과  
함께 빈 궁정악단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전통이 깊은 합창단으로,

그들의 고유한 가창전통은 유네스코(UNESCO)  
지정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역사와 음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빈 소년합창단이 수백 년간 불  
러왔던 성가곡을 비롯하여, 합창단과 인연을 맺  
은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트라우스의 음악을 비  
롯하여 세계각국의 음악, 그리고 전세계에서 사  
랑받았던 빈 소년 합창단을 대표하는 음악들을  
들려준다.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일 시** | 2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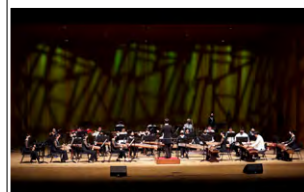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부산시립국악  
관현악단이 관객들에게 전하는 새해 첫 인사  
'2023년 신년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새해의 밝은 기운을 담아 다채  
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 프로그램

거문고 4중주 '출강', 소나무, 아리랑·밀양아리  
랑, 무화, Fly to the Sky, Happiness, 민요의 향연,  
범 내려온다·난감하네, 영남성주굿·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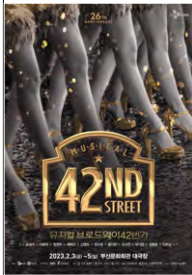
- 사회/백규진



부산시민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일 시 | 2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4일 토요일 오후 2:00, 7:00, 5일 일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4만원, OP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8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갖춘 월드클래스 쇼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뮤지컬의 도시 브로드웨이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시골 출신 '페기 소녀'가 브로드웨이 댄서가 되기 위한 꿈을 향한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국내에는 지난 1996년 초연된 이후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막이 오르는 순간, 압도적인 탭 댄스 군무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국내 초연 26주년을 맞이한 이번 무대에서는 더욱 더 화려한 라인업으로 부산 관객들을 만난다.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2023년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지난 1973년 개관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시민회관은 2017년 (재)부산문화회관에 통합된 후 대중 장르 중심의 시민친화적인 공연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부산시민회관의 개관 50주년을 축하하는 첫 무대인 '신년음악회'의 주인공은 최수열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973년 10월 10일, 부산시민회관 개관 당시 경축공연을 이끈 대표적인 연주단체이자 그 해 10월 1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정기공연을 올린 최초의 단체이다.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무대인 이번 신년음악회에서는 클래식 음악방송 DJ, 클래식 콘서트 진행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기자 김석훈이 사회를 맡아 명품 진행으로 관객들을 클래식 세계로 이끈다. 특히 완벽한 기교와 따뜻한 감성을 겸비한 클래식 한류열풍의 주역인 첼리스트 송영훈과 TV예능과 다수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친근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 피아노 앞에서 자유롭게 펼치는 아이디어와 자유로움을 누리는 연주로 각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중해가 협연자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프로그램

- 엘가/사랑의 인사
- 드보르자크/슬라브 무곡 작품 46 중 제8번, 작품 72 중 제2번
- 슈트라우스 2세/'천둥과 번개' 폴카, '트리치 트라치' 폴카
- 베토벤/삼중 협주곡 중 제1악장
-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제1번

2023년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아도라블 뮤직 010-2829-7196



부산, 경남지역의 젊은 연주자들이 마련하는 2023년 신년음악회.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새해의 소망을 담아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독주에서부터 듀오, 트리오, 5중주까지 다채로운 편성의 곡들이 연주된다.

프로그램

- 글리에르/12개의 소품 작품 51 제1번
- 도플러/미국 주제에 의한 듀엣티노
- 베버/'마탄의 사수' 서곡
- 쇼스타코비치/5개의 소품 등 수곡
- 튜바/강지원 • 트럼펫/김경민, 문혜성
- 트럼본/김보곤 • 호른/백승현
- 피아노/서민철, 임재훈, 장준서, 정영훈
- 바이올린/이예빈
- 바이올린, 비올라/이혜빈
- 플루트/조영찬

가족뮤지컬  
급식왕-발가락 떡볶이의 비밀

일 시 | 1월 14일-15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7만원, R석 6만원(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주)썬공이엔터 1522-2061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 140만명, 누적조회수 17억 뷰를 기록한 '급식왕'을 뮤지컬로 탄생시킨 '급식왕-발가락 떡볶이의 비밀'. 오늘도 교실은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수 얘기로 시끌벅적하다. 유튜브 스타가 되기 위한 과열 경쟁 속에 놓인 아이들. 먹방 유튜브를 운영중인 생글이는 자극적인 방송을 위해 지옥의 9단계 매운맛 먹기 도중 응급실에 실려 가고 반회는 조작방송을 통해 하루아침에 인기스타가 된다. 한편, 급식왕 선생님과 아이들의 단골 가게인 '할매 떡볶이'는 나쁜 세력에 의해 문을 닫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는데, 과연 급식왕들은 위기에 빠진 이 가게를 구해낼 수 있을까...

뮤지컬 브레드이발소  
대결! 최고의 이발사

일 시 | 2월 4일-5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오후 4:30 대극장  
입장료 | 1층석 6만원, 2층석 5만원 (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주)엔에스컴퍼니 1544-1555



2019년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인 후 시즌3까지 방영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보여온 '브레드이발소'를 뮤지컬로 제작한 무대. 오늘도 손님들로 가득한 브레드이발소. 예전의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바케트가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브레드에게 다시 도전장을 내미는데... 무뚝뚝하고 자기중심적이지만 곤경에 빠진 이웃을 보면 남몰래 챙겨주는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인 천재 이발사 브레드를 주인공으로, 화려한 영상무대와 신나는 음악, 그리고 흥미진진한 대결 스토리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음악

부산시민교향악단 창단연주회

일 시 | 1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민교향악단 010-9081-4731,  
 010-9888-6888



음악을 사랑하고 악기연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모아 창단한 부산시민교향악단 창단연주회.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아마추어 연주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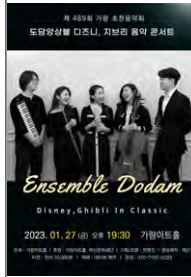
로 구성된 부산시민교향악단은 지난 2020년 1월 설립된 후 그해 5월 첫 합주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7월과 8월에 첫번째 작은연주회와 뮤직캠프를 가진 바 있다.

지휘자 정현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주페의 '시인과 농부' 서곡을 시작으로 하차투리안, 스메타나, 드보르자크의 곡을 들려준다.

- 지휘/정현진

제489회 가람 초청음악회  
 도담양상을 디즈니, 지브리 음악 콘서트

일 시 | 1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가람아트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가람아트홀 010-7702-0293



작곡가 겸 프로듀서 강유(강현민)을 중심으로 손안나, 홍영은, 정혜주, 강철주로 구성된 피아노 4중주 도담양상들의 무대. 도담양상들은 지난 2019년 12월에 결성된 후 다양한 장르의 곡을 직접 편곡한 퓨전 클래식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으며, 공연장이 아닌 카페, 학교, 야외무대, 온라인 스튜디오 등 여러 무대 플랫폼을 위한 맞춤형 공연도 가져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디즈니와 지브리의 곡을 클래식으로 편곡,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연극

뮤지컬 런던레코드

일 시 | 2022년 12월 16일(금)-2023년 2월 28일(화)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엠스테이지 010-8332-1830



조용필, 이문세, 이승철 등 10여 년 동안 콘서트 연출을 맡았던 김인성 연출가가 극작, 작곡, 연출을 맡아 특히 K-Pop을 좋아하는 전 세계인의 취향에 맞춰 작곡된 최신 트렌드 음악들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런던 외곽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레코드 샵, 주인인 존 앞에 방금 세계일주를 마치고 돌아온 찰리와 오디션에 떨어진 스칼렛이 찾아온다.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이 세명의 만남은 음악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 주며 한팀이 되어간다.

특히 이번 작품은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요즘시대에 극중 인물들을 통해 다시 한번 꿈을 꾸며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준다.

뮤지컬 킵키부츠

일 시 | 2022년 12월 24일(토)-2023년 1월 1일(일)  
 금요일 오후 8:00, 주말 오후 2:00,  
 7:00(1/1일 오후 2: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지난 2013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후 토니어워즈 6관왕,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즈 3관왕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뮤지컬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킵키부츠.

1979년 영국 노샘프턴의 신발 공장에서 있었던 실화를 토대로 탄생한 '킵키부츠'는 경영 악화로 폐업 위기의 구두공장을 물려받은 찰리가 편견과 억압에 당당히 맞서는 여장남자 톨라를 만나 특별한 신발 '킵키부츠'를 만들면서 회사를 살리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은 작품이다.

창작뮤지컬 달래

일 시 | 2022년 12월 29일(목)-2023년 1월 8일(일)  
 (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오후 2:00  
 무대공감소극장 at 잼스톤  
 입장료 | 전석 2만5천원(12세 이상 관람)  
 문 의 | ㈜반올림 010-2111-3873



취업이 가장 고민인 평범한 청년 달래와 히키코모리 채현을 통해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려낸 창작뮤지컬 '달래'.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6년동안 자신의 방에 갇혀 생활하고 있던 히키코모리 채현은 생활비 부족으로 셰어하우스 임대인을 모집하고 취업준비생 달래가 임대인으로 들어온다. 얼떨결에 달래의 취업을 도와주게 된 채현은 그 과정에서 점차 보통의 청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 작, 연출/박치열
- 출연/배문수, 강유정, 이채현

코믹연극 택시안에서

일 시 | 1월 1일(일)-29일(일) 수-금요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30, 6:00(월-화요일 공연없음) 해바라기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극단 바라 1600-1716



감동과 반전이 있는 로맨틱 코미디극 '택시안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연애 초보 하영과 소희는 연애를 시작하지만 만남이 길어질수록 서로 지쳐가고 결국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된다. 이별의 상처로 소희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하고 뒤늦게 후회가 밀려온 하영은 소희를 만나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타는데...

결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하는 연극 '택시안에서'는 택시 안에서 일어나는 택시기사 민수와 손님 하영의 85분간 리얼타임 연극답게 속도감 있는 전개와 코믹한 상황으로 극의 재미를 더한다.

## 코믹연극 달동네

일 시 | 1월 1일(일)-29일(일) 수-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팩토리**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극단 바라 1600-1716



웃음과 진한 감동을 전하는 연극 '달동네'. 주인공 아버지 경민은 월남전 참전 중 행정착오로 전사자 처리가 되고, 전사 통지서를 받은 아내 혜자는 사춘기 소녀 정음과 철부지 막내 정용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 부산의 달동네에 자리잡고 살아간다.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경민은 귀향 후 가족을 찾아 전국을 다니던 중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하는 아내를 만나지만... 연극 '달동네'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사랑이 있었던 그 때 그 시절 달동네를 통해 가족과 이웃에 대한 정을 이야기한다.

## 어린이 뮤지컬 어린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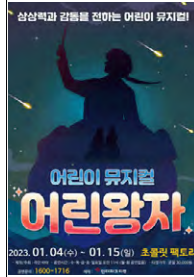
일 시 | 1월 4일(수)-15일(일) 오전 11:00  
(월-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팩토리**

입장료 | 전석 3만원

(36개월 이상 관람가능, 예매시 할인)

문 의 | 극단 바라 1600-1716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행사였던 생텍쥐페리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어린이 뮤지컬 '어린왕자'. 사교로 사하라 사막에 떨어지게 된 비행기 조종사는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별에서 온 어린왕자를 만나게 되고, 어린왕자는 조종사에게 별을 여행하며 만난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과연 어린왕자는 별나라를 여행하며 무슨 일들을 겪었을까? 특히 이번 무대는 원작의 아름다움을 살려낸 스토리와 음악, 그리고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즐거운 마술 퍼포먼스까지,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뮤지컬의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 연극 나의 PS파트너

일 시 | 1월 5일(목)-3월 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1/25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만 18세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성, 김아중 주연의 동명의 영화를 무대화한 연극 '나의 PS파트너'. 5년간의 긴 연애로 시들해진 연인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한 윤정, 자신의 모든 개인기(?)를 선보이지만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닌데... 수화기 너머로 각자의 연애와 일상 등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지는 두사람,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연극 '나의 PS파트너'에서는 오직 성인만 공감할 수 있는 꿈과 현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사랑에 관한 거침없고 솔직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 연극 불편한 타이밍

일 시 | 1월 5일(목)-3월 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1/25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만 18세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세 남자가 벌이는 좌충우돌 한바탕 소동을 통해 웃음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코미디극 '불편한 타이밍'. 와이프가 친정에 간 틈을 타 친구 오후와 강건을 초대한 정민, 광란의 밤을 보내고 다음날,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집주인 정민이 사라졌다. 그들 앞에 나타난 시체와 정체모를 여자, 그리고 조폭까지, 어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영화 '행오버'를 패러디한 '불편한 타이밍'은 특히 심없이 바뀌어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극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 뮤지컬 'CATS' 오리지널 내한

일 시 | 1월 6일(금)-1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2:00, 7:00(1/11일 2회 공연)

**부산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젤리클럭스 17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문 의 | 클립서비스(주) 1577-3363



전 세계 30개국, 300개 도시, 7550만 명이 사랑한 명작 'CATS' 내한공연.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대문호 T. S. 엘리엇의 원작을 뮤지컬로 옮긴 'CATS'는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빛어진 무대 예술과 역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안무, 불후의 명곡 '메모리(Memory)'를 비롯한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올리비아상, 토니상, 드라마데스크상, 그래미상 등 전 세계 유수의 상을 석권했다. 특히 이번 무대는 5년 만에 작품 본연의 매력을 살린 오리지널 연출과 고양이들을 눈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젤리클럭스의 부활, 그리고 최정상의 배우들이 관객의 마음을 훔친다.

## 어린이 뮤지컬 책먹는 여우

일 시 | 1월 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8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전석 3만원(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극단 가람 010-2284-4842



어린이 베스트셀러인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동명의 동화를 어린이 뮤지컬로 제작한 '책먹는 여우'. 주인공인 여우 아저씨는 책을 본 뒤에 먹는 걸 좋아한다. 먹을수록 식탐도 커져서 결국 국립도서관의 책들을 빌려 마음껏 음미한다. 하지만 찢기고 침으로 범벅된 책들 때문에 항의를 받느라 골머리를 앓던 도서관 사서는 범인인 여우 아저씨를 도서관에서 쫓은 후 도서관 출입을 금지시키는데... '책 먹는 여우'는 책을 읽은 후 책을 먹는 여우로 인해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사건을 신나는 음악과 코믹한 연기로 풀어내면서 관객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인다.



콘서트

### 22-23 로얄콘서트

일 시 | 1월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6: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9만9천원, B석 8만8천원  
 문 의 | ㈜스프링이엔티 02-579-0229



최근 첫 싱글 발매소식을 알렸던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Forestella) 부산콘서트.

강형호, 고우림, 배두훈, 조민규로 구성된 포레스텔라는 지난 2017년 방송된 JTBC '팬텀싱어' 우승팀으로, 크로스오버

그룹으로는 이례적으로 전국투어 콘서트에서 전석 매진행렬을 이어가는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4명의 음색과 보컬 스타일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으며, 클래식한 4중창에 기반하면서도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곡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감동과 전율을 선사하고 있다.

### 2023 조명섭 참좋은 달밤 음악회

일 시 | 1월 14일 토요일 오후 1:00, 6: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석 13만2천원, R석 12만1천원  
 문 의 | 밝은누리 1566-9621

### SURL(설) 전국투어 review of us

일 시 | 1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입장료 | 스탠딩석 6만6천원  
 문 의 | ㈜엠피엔지 1544-1555

### 2023 김재환 소극장 콘서트

#### 달과 별 그리고...

일 시 | 1월 28일-29일 토-일요일 오후 6: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1층 11만원, 2층 9만9천원  
 문 의 | ㈜스프링이엔티 02-579-0229

### 적재 콘서트 The LIGHTS

일 시 | 1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드림씨어터**  
 입장료 |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2014년 정규 1집 '한마디'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정식 데뷔한 후, 한 CF에서 배우 박보검이 리메이크해 화제가 된 '별 보러 가자'를 비롯 '나랑 같이 걸을래', '반짝 빛나던' 등 섬세한 감성이 깃든 진솔한 노래들로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적재 콘서트.

그동안 아이유, 태연, 김동률, 박효신, 정재형, 거미, 케이윌 등 많은 뮤지션들과 음악작업을 함께 하며 공연의 라이브 세션으로 이름을 알린 적재는 다양한 가수들로부터 함께 일하고 싶은 뮤지션으로 꼽히며 실력을 인정 받았다.

이번 무대는 8년만의 정규 앨범과 함께 돌아온 선물 같은 콘서트로, 오랜 시간 아티스트 적재의 행보를 응원해준 팬들을 향한 남다른 애정이 담긴 무대이다.

행사

### 1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2:00, 7: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매주 화요일에는 베를린 필 디지털 콘서트홀의 최근 정기연주회 실황을, 금요일에는 잘츠부르크 실황 및 인기오페라를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오페라·다큐/원헌 오페라 제작과정(6일), 모차르트 '돈 조반니'(13일), 바그너 '방황하는 네델란드인'(20일),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27일)

콘서트/제야음악회(1일 오후 4:00, ※특별편성), 세문 비치코프의 말러 교향곡 제4번(3일), 안드리스 넬슨스의 말러 교향곡 제5번(10일), 대니얼 하딩의 말러 교향곡 제6번(17일), 키릴 페트렌코의 말러 교향곡 제7번(24일), 사이먼 래틀의 말러 교향곡 제8번(31일)

###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아카데미 클래식음악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1개월 5만원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아카데미'.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음악의 해외 연주회 실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2023년 1월에는 '겨울을 그린 작곡가의 생애와 음악'이라는 주제로 슈베르트, 차이콥스키, 그리고, 비발디 등 작곡가 탄생지를 찾아 그들의 음악 세계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 프로그램

그리그 음악의 풍경 노르웨이와 시벨리우스의

#### 훈 판란드

물의 도시 베네치아와 비발디, 그리고 몬테베르디 러시아 문화의 정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차이콥스키  
 고독의 산실-겨울나그네 슈베르트의 생애와 음악  
 신년 특집 2023년 빈 신년 음악회 하이라이트

### 제182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새해, 희망 주제 詩낭송회

일 시 | 1월 29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010-6367-0149

- 출연/김승희 시인 외 회원, 초대시인
- 초청 성악가/권소라(소프라노)

## 1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2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2일(월) 오후 7:00 천주교 상장례 노래 연도(煉禱)

- 강사/주은경(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특별연구원)

9(월) 오후 7:00 숨쉬는 악기, 반도네온

- 강사/김종완(반도네온 연주자, 작곡가, 친친탱고 대표)



12일(목) 오전 11:00 낭송과 낭독 그리고 詩수다 '꿈꾸는 섬(송수권 시집, 문지사, 1984)'

- 진행/이나열 시인

16(월) 오후 7:00 나는 우물을 보았다(평동마을 海人 촬영 후기)

- 강사/김남호(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30일(월) 오후 7:00 정해성의 문화공간 미술과 음악 2 '피터 브뤼겔의 달력과 차이코프스키의 세계'

- 강사/정해성(문화평론가, 라움 Y 대표)

## 예필의 종합예술 렉처콘서트(7) 집시음악과 플라멩코

일 시 | 1월 14일 토요일 오후 4:00  
서면 영광도서 8층 문화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예필 최정옥 010-3853-6634



음악, 미술, 영화 3분야 예술인으로 등재된 예필 작가와 함께 떠나는 집시예술 기행. 집시음악과 아랍 미술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음악, 미술, 영화, 詩, 역사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진다.

### 프로그램

집시 영화/노들담의 꿈꾸(The Hunchback Of Notre Dame, 1956, 장 들라누아 감독)  
집시 음악/몰도바(Moldova, 세르게이 트로파노프), 검은 눈동자(Dark eyes, 이반 레브로프) 등 12곡  
아랍 미술/거리의 악사들(Musicians in the Street, 자와드 살림, 이라크) 등 8점  
집시의 詩/아! 페데리코(가르시아 로르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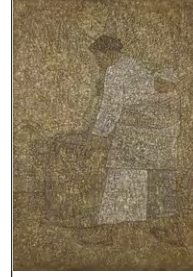
## 전시

###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 미술 특별전 수집·위대한 여정

일 시 | 2022년 11월 11일(금)-2023년 1월 29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입장료 | 초대(인터넷 예약 및 현장발권 가능)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이건희컬렉션을 비롯하여 리움미술관, 뮤지엄산,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고려대학교박물관, 가나문화재단 등 미술계에서 각자만의 정체성을 구축해온 다양한 컬렉터들의 컬렉션 작품을 한자리에 서 만날 수 있는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 미술 특별전.

박수근 '절구질하는 여인'(1957,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김환기 '작품-19-Ⅷ-72'(1972, 리움미술관) 등 각 컬렉터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100여점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미술에 대한 사랑과 작품을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위대한 여정을 이어온 컬렉터들의 발자취를 한자리에 모아 수집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볼 수 있다.

## 2022 제3회 신수유물 소개전 개항장의 수출화가, 기산 김준근

일 시 | 2022년 10월 18일(화)-2023년 2월 12일(일)  
부산박물관 부산관 2층 미술실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 부산현대미술관 기획전 누구의 이야기

일 시 | 2022년 12월 9일(금)-2023년 3월 5일(일)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 2  
문 의 | 부산현대미술관 220-74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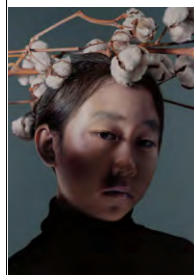
##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팝업 기획전 에그박사팀의 연구실

일 시 | 2022년 12월 23일(금)-2023년 2월 19일(일)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5층  
입장료 | 관람료 5천원  
문 의 | KT&G 상상마당 부산 070-8893-0892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8:00

## 강강훈展

일 시 | 2022년 12월 15일(목)-2023년 1월 29일(일)  
조현화랑  
문 의 | 조현화랑 747-8853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등 여러차례의 해외 아트페어에 소개되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강강훈 작품전. 얼굴의 미세한 솜털과 땀구멍까지 세밀히 묘사해 사진으로 착각하게 하는 인물화 연작을 선보이는

강강훈은 극사실주의의 기본원리인 '리얼리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미술사조의 특질을 배제한다.

강강훈의 작품들은 주관을 내재하고 있으며, 단순히 재현의 차원에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 내연의 세계로 진입하려 하는데, 그의 이런 미학적 태도는 전통적인 한국 초상화 제작기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전신사조(傳神寫照)와도 맞닿아 있다.

## 강유나 초대개인전 The\_특별한 동행

일 시 | 2022년 12월 28일(수)-2023년 1월 29일(일)  
갤러리 한스  
문 의 | 갤러리 한스 784-0233



화병 위 다양한 꽃과 나뭇잎 사이에 숨어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 함께 해서 행복함을 이야기하는 강유나 초대 개인전 'The\_특별한 동행전'. 이번 작품은 전체적으로 유화물감을 나이프로만 올리면서 작업하기에 화

면에 독특한 질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수익금 일부는 유기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역사(Station)에서 만나는  
세계 시그니처 문화공간 여행

# SPACE | N SPACE

2023년 2월 28일까지, 부산동구시민마당



사람과 자원을 실어 나르던 물류 플랫폼이었던 부산진역이 지난해 4월, 사람과 문화를 모으고 확산시키는 동구의 새로운 시민공간인 '부산동구시민마당'으로 재탄생했다. 이에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전 세계인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온 '시그니처 문화공간'을 소개하는 특별한 전시 'SPACE IN SPACE'가 2월 28일까지 부산동구시민마당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아트컨시어지 이상훈 대표가 전 세계 1,300여 도시를 방문하며 기록한 시그니처 문화공간-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축제극장, 미술관 등 건축 사진 200여점과 50여 점의 오페라 포스터, 그리고 다수의 도시 마그네틱 전시를 통해 전 세계 시그니처 문화공간을 여행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물류플랫폼에서 문화플랫폼으로 재탄생한 부산진역의 역사를 조명하는 한편, 유럽의 명문 오페라극장과 세계적인 작가들이 협업한 독일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의 포스터를 전시하는 오페라 섹션을 비롯 축제, 뮤지컬, 콘서트, 엑스포, 라운지, 시그니처 스페이스 등 7개 섹션으로 나뉘어 전시된다. 특히 지난 1851년 세계 최초의 엑스포가 열렸던 런던 엑스포를 시작으로 2021 두바이 엑스포 등 주요 도시들에서의 엑스포를 소개하는 엑스포 섹션을 통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기원하며 새로운 북항시대의 꿈을 함께 그려나가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밖에 전시가 열리는 기간동안에는 2층 플레이아르트에서 예술과 놀이가 만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매주 주말 오후 1:00~오후 6:00, 단, 1/22 설날은 휴관)



**입장료 무료 문의 스페이스움 010-4945-6470**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위한 2022 로비음악회 성료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로비음악회가 지난 11월 2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펼쳐졌다.

이날 로비음악회에서는 변원탄 회장을 비롯한 후원회원 및 가족 80여명과 이정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부산문화회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실내악팀, 부산시립합창단 중창팀, 그리고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진영훈이 출연, 후원회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

지난 2018년 1월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발족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인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 후원활동 및 기부문화 조성에 힘써오는 한편,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품격높은 문화공간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 BNK부산은행,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전달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이 지난 12월 5일,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으로부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3천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금은 1월 3일부터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23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매년 BNK부산은행의 후원으로 열리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2017년 챔버홀 개관을 기념하여 열리는 실내악 축제로,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청할 수 없었던 해외 아티스트들을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아티스트들을 초청, 1월 17일까지 7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내악의 성찬을 펼친다.

지난 12월 5일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서 (재)부산문화회관 이정필 대표이사는 "이번 BNK부산은행의 후원금은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고 다시 기지개를 펴는 지역 문화예술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기관과 금융기관으로서 부산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수행에 함께 힘써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들의 예술감상 길라잡이  
부산시립예술단  
2023년 <꿈꾸는 예술학교>**

2020년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예술감상교육을 위해 출발한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꿈꾸는 예술학교>가 2023년에도 수준 높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공연관람기회가 적은 부산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무대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꿈꾸는 예술학교>는 ‘공연장 공연’과 학교를 찾아가는 ‘학교방문 공연’, ‘온라인 공연’ 3개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연장 예술교육공연’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등 5개 단체의 공연을 생동감 넘치는 공연장에서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진행된다. 학교방문 공연은 부산문화회관을 찾지 힘든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공연프로그램으로, 합창단과 국악관현악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 등이 학생들을 만난다.

2022년 한 해 동안 부산시립예술단은 공연장 공연 총 63회, 학교방문 공연 총 48회를 진행, 26,604명의 학생들이 ‘꿈꾸는 예술학교’를 통해 공연과 친숙해질 수 있었다. 특히 2022년에는 부산문화회관을 벗어나 금정구 지역 학생들을 위해 부산시립합창단의 ‘교실 밖 합창여행’을 금정문화회관에서 진행하며 큰 박수를 받았고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과 함께 학생들의 오페라 교육을 위해 토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를 기획,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토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는 지역 청년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오디션 진행, 실력 있는 청년예술가들의 등용문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2023년 <꿈꾸는 예술학교>는 2022년 공연 반응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2023년 무대의 시작은 4월, 부산시립합창단의 ‘교실 밖 합창여행’으로 막을 연다. 부산시립합창단은 학년에 맞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다양한 악기와 함께 합창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곡 작업을 진행, 2023년 10회의 공연장 공연을 준비할 예정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준비하는 ‘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은 2022년 국악 본연의 매력과 K-팝을 결합한 창작곡, 동요편곡들을 준비, 10여회의 공연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 공연장을 찾아가는 맞춤 공연으로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그 외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백조로 태어났지만 오리로 살아가는 아기백조의 성장이야기를 다룬 부산시립극단의 ‘미운오리새끼’와 청소년들을 위한 연극 ‘소년B가 사는 집’, 부산시립합창단 특별공연 ‘옛날 옛적에’ 등이 2023년 부산지역 청소년들과 만날 예정이다.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꿈꾸는 예술학교> 2023년 공연은 현재 접수중이며,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접수 및 문의는 공연사업팀(051-607-3113)으로 하면 된다.



B



### 부산의 마이너리티 힘

허정백 지음 / 전망 / 2만원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의 지역 곳곳에 많은 이야기가 있다. 알면 알수록 소중하고 깊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인데도 가까이 있기에 오히려 무관심과 무지 속에 묻혀있는 경우가 많다. 부산도 그렇다. 부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나왔다. 지리교육을 전공하고 30여 년 줄곧 교사로 일한 허정백 저자는 인문학자이기도 하다. 멀리 해외를 통해 넓은 세상의 지식을 얻는 만큼이나 우리 지역의 좁은 세상 이야기를 배워야 한다고 믿는 저자가 부산 사람의 삶과 역사와 흔적을 들려준다. 부산진과 구포는 부산을 키워낸 중요한 터전이다. 저자는 지금은 다소 소외 지역(마이너리티)으로 전락했지만 이 지역의 삶이 있었기에 부산이 커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 눈으로 부산진과 구포, 만덕 지역을 살펴보았다. 저자는 이 책이 삶의 현장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책 속의 역사, 지리, 사회 지식들이 문자로만 남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지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부산 이야기를 담은 책을 들고 그곳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체험하고 느끼는 활동까지 이어진다면 더 좋겠다.

O



### 미역국에 밥 한 그릇

김준호 글, 손심심 그림 / 학이사 / 1만8천원

김준호·손심심 국악인 부부가 '미역국에 밥 한 그릇'을 펴냈다. 국악인이자 민속학자인 김준호는 미역과 쌀과 보리의 문화 원형에 대한 담론을 펼친다. 전통 예술가이며 현재 (사)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회장을 맡고 있는 손심심은 그림을 그렸다. 김준호는 팔도강산을 넘나들며 우리 소리와 이야기를 모을 때, 우리네 삶에서 쌀 보리 미역은 떼놓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먹거리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그 오랜 역사를 더해 우리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는 위대하고 신앙에 가까운 음식이다. 이 책은 1부 '미역 로드', 2부 '쌀 문화 일만오천년', 3부 '그 보릿고개 너머'로 구성됐다. 우리에게 미역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생명을 받은 날을 상징하는 '탄생해조'이다. 아이를 낳은 산모는 미역국을 먹고, 아이는 훗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생일날마다 미역국을 먹는다. 미역국은 한 생명의 몸에서 태어난 또 다른 생명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비는 마음이었다. 우리 밥상의 중심인 밥을 짓는 쌀, 가난과 기아 차별의 상징이면서 지긋지긋한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게 해 준 고마운 보리. 우리 문화의 원형을 미역, 쌀, 보리로 풀어간다.

K



### 우리 미술 이야기 3

최경원 지음 / 더북북 / 3만2천원

우리 고유의 미술을 낫설어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도록 소개해 온 최경원의 미술 인문학 시리즈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의 비밀-우리 미술 이야기> 세 번째 책이 나왔다. 이 시리즈는 저자가 10여 년간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 유적지를 발로 뛰어 온 결과물이다. 직접 작업한 글과 수천 컷의 그림, 사진을 수록해왔다. 디자인 인문학 관점에서 우리 미술과 문화의 아름다움을 다음 세대까지 전하고자 친절하고 흥미롭게 풀어냈다. 이번에는 '철학의 나라-조선'을 다루었다. 조선을 무기력하고 고리타분한 나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자는 조선은 철학이 배어 있는 예술을 가진 나라였다고 말한다. 조선은 철학이 깃든 명품을 만들고, 서양보다 수백 년 먼저 추상미술이 대세였고, 왕실 물품에서 서민의 일상도구까지 예술의 민주화를 이룬 나라였다는 사실을 34가지 역사적 소재들을 통해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도자기, 조각, 그림은 물론이고 옷과 가구와 식기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 당대의 경제력과 기술 수준을 가늠케 하는 첨단 무기들, 중국·일본과 다른 공간 미학을 품은 건물들까지 골고루 아울러 풍부하 그림·사진까지 곁들여 소개한다.

# BSCC

P R O G R A M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3 시즌 프로그램(1월~6월)

###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공연 1일 전 취소 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 마감 17시 이후 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 2023. 1-6월

January - June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 부산문화회관

새해의 시작을 여는 실내악의 향연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부산으로부터의 초대>**

**문화 | 중극장 챔버홀**  
2023. 1. 3.(화)-1. 17.(화)  
예술감독 | 김동욱



### All that Chamber music :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리더들의 실내악 향연

**문화 | 중극장** 2023. 1. 3.(화) 7:30pm  
R 30,000원 S 20,000원  
• 바이올린 | 데니스 김, 미셸 김, 김동욱, 임홍균  
• 비올라 | 최영식, 배은진  
• 첼로 | 요나 김, 벤자민 휴즈  
• 피아노 | 션 케너드 • 클라리넷 | 백동훈



### Trio Barclay :

The Essentials of Piano Trio & Quintet :  
바클레이 트리오가 들려주는 피아노 트리오와  
퀸텟의 진수

**문화 | 챔버홀** 2023. 1. 4.(수) 7:30pm  
전석 20,000원  
• 바이올린 | 데니스 김, 미셸 김 • 비올라 | 최영식  
• 첼로 | 요나 김 • 피아노 | 션 케너드



### 학교 실내악 축제

**문화 | 챔버홀** 2023. 1. 7.(토) 5:00pm  
전석 10,000원  
※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부산예술중학교



### 3인3색(三人三色) in Busan : 실내악 열전

**문화 | 챔버홀** 2023. 1. 10.(화) 7:30pm  
전석 20,000원  
※ 주빌레 클라리넷 앙상블, KNN 앙상블,  
앙상블 아토



### Rosenstein String Quartet :

로젠슈타인 현악4중주  
**문화 | 챔버홀** 2023. 1. 12.(목) 7:30pm  
전석 30,000원  
• 바이올린 | 알렉산더 크낙, 이수은  
• 비올라 | 디르크 헤게만, 황여진  
• 첼로 | 마누엘 본 데어 나머, 홍승아



### The Variety of Chamber music :

기(起)-승(承)-전(轉)-실내악(室內樂)  
**문화 | 챔버홀** 2023. 1. 14.(토) 5:00pm  
전석 20,000원  
• 바이올린 | 김현오 • 첼로 | 김지영  
• 피아노 | 조민현 • 소프라노 | 양송미  
• 피아노 | 김성주 • 비올라 | 김가영 • 동백유랑단



### 폐막 연주회 :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with 심희정

**문화 | 챔버홀** 2023. 1. 17.(화) 7:30pm  
전석 20,000원  
•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 피아노 | 심희정



### 2023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1. 29.(일) 4:00pm  
R 70,000원 S 50,000원 A석 30,000원  
• 지휘 | 마놀로 까닌 • 출연 | 빈 소년 합창단



### 뮤지컬의 본 고장, 당신이 꿈꾸는 바로 그 곳!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문화 | 대극장** 2023. 2. 3.(금)-2. 5.(일)  
금요일 7:30pm, 토요일 2:00pm, 7:00pm,  
일요일 2:00pm  
R 140,000원 OP 130,000원 S 100,000원 A 70,000원  
• 출연 | 송일국, 이종혁, 정영주, 배해선, 신영숙, 전수경, 홍지민, 오소연,  
유낙원, 김동호, 이주순 외  
•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3. 3. 10.(금) 7:30pm  
R 60,000원 S 40,000원



### 색다른 모미의 공주 이야기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문화 | 사랑채** 2023. 3. 16.(목)-4. 27.(목)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 제작 |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 출연 | 황차미, 우지현, 박규한, 김현주, 김선정 외 다수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양인모&김다솔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3. 3. 29.(수) 7:3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 유럽 최고 수준의 스페니시 챔버 앙상블 콘체르토 말라가

**문화 | 대극장** 2023. 4. 6.(목)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티켓오픈 추후공지





임지영&문태국 슈퍼 듀오와 함께하는  
브람스 음악세계의 진수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 문화 | 대극장** 2023. 4. 22.(토) 5:00pm  
V 150,000원 R 12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 지휘 | 마르코 레토나
  - 연주 |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협연 | 임지영(바이올린), 문태국(첼로)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빈 Guitar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 문화 | 중극장** 2023. 4. 27.(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 출연 | 기타리스트 캐시 마르탱, 로안나 코조글로우, 장승호
  - 콘서트 가이드 | 국지연



별과 꿈, 동심의 만남! 우리가 꿈꿔온 설렘이 시작된다  
어린이 베스트 캐릭터 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

- 문화 | 사랑채** 2023. 6. 9.(금)-7. 23.(일)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 제작 | 극단 오오씨어터
  - 출연 | 박규한, 김성열, 이충환, 정지수 외 다수
  -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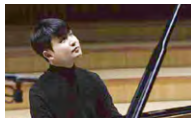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자극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 문화 | 사랑채** 2023. 8. 18.(금)-9. 24.(일)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 제작 | 극단 영
  - 출연 | 최진희, 원우연, 이승, 이한강, 이명진 외
  -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 문화 | 대극장** 2023. 10. 6.(금) 7:3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 시민 | 대극장** 2023. 1. 10.(화)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 최수열(예술감독)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사회 | 김석훈 • 첼로 | 송영훈 • 바이올린 | 대니 구 • 피아노 | 박종해



인생 2막, 새로운 청춘, 다시 가슴이 뗌다!!  
**쓰리보이즈 리턴즈**

- 시민 | 소극장** 2023.2.10.(금) 7:30pm  
2.11.(토) 3:00pm  
전석 20,000원
- 제작 | 공연집단The
  - 연출 | 김기영
  - 출연 | 강열우, 정승천, 황해순
  - 관람연령 | 초등학교 3학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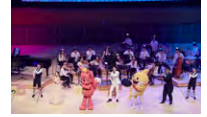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낭만 발레의 걸작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 시민 | 대극장** 2023. 4. 7.(금) 7:30pm,  
4. 8.(토) 3:00pm  
V 90,000원 R 7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 대본 | 배르노이 드 생 조르주, 테오펠 고티에, 장 코라이
  - 안무가 | 장 코라이, 질 페로 • 음악 | 아돌프 아당
  - 연출 | 올레그 비노그라도프, 유병헌
  - 관람연령 |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뚜똘를 찾아라**

- 시민 | 대극장** 2023. 5. 20.(토) 3: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 출연 | 핑크퐁, 아기상어, 대니 구, 핑컨코러스,  
바샤르 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피아노의 음유시인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시민 | 대극장** 2023. 5. 26.(금) 7:3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 관람연령 |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청년 버스커들의 대축제!  
**부산버스킹페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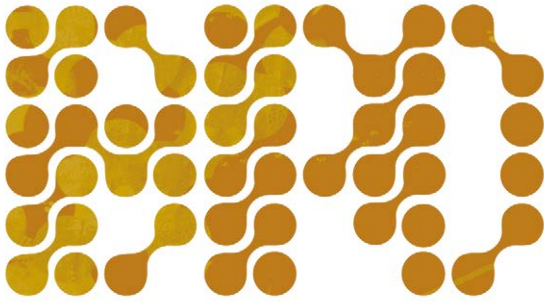
- 시민 | 소극장** 2022. 6. 3.(토) 3:00pm  
전석 20,000원
- 연주 | 버스킹 경연에서 선발된 10개의 밴드  
초청가수(미정)



부산에서 만나보는 세계 어린이·청소년극!  
**세계 어린이·청소년 예술축제  
아시테지 인 부산**

- 시민 | 소극장** 2023. 7월 중





# 2023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최수열  
올해의 예술가 손민수

# BPO SYMPHONIC SEASON 2023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Minsoo Sohn, Artist-in-Residence 2023



## 596 6 Last Works I Beethoven, Gulda and Dvořák

1월 19일 THU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첼로 심준호

### Program

베토벤 /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굴다 / 첼로와 관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드보르자크 /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 597 Wagner and Bruckner

2월 21일 TUE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홍석원

### Program

바그너 / “트리스탄과 이졸데” 中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  
브루크너 / 교향곡 제6번 (노바크 판본)



## 598 6 Last Works II An All-Brahms Program

3월 23일 THU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피아노 손민수 (2023 올해의 예술가)



### Program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브람스 / 교향곡 제4번



## 599 Mendelssohn and Bartók

4월 21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금노상  
바이올린 나승준 (2023 정기연주회 오디션 합격자)

### Program

멘델스존 / “핑갈의 동굴” 서곡  
멘델스존 / 바이올린 협주곡  
버르토크 /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 600 6 Last Works III Mahler's 9th Symphony

6월 16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 Program

말러 / 교향곡 제9번

## 601 Shostakovich and Prokofiev

7월 21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서진  
바이올린 김재원

### Program

쇼스타코비치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프로코피예프 / 교향곡 제7번



## 602 6 Last Works IV Four French Composers

(202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9월 7일 THU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바이올린 올리비에 샤를리에

### Program

메시앙 / 미소  
쇼송 / 시  
라벨 / 치간  
비제 / “카르멘” 모음곡 中 발췌



## 603 An All-Tchaikovsky Program

9월 22일 FRI 19:30 시민회관 대극장  
지휘 김덕기  
피아노 세르게이 타라스프

### Program

차이콥스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차이콥스키 / 발레 모음곡 中 발췌



## 604 6 Last Works V Haydn and Brahms

10월 27일 FRI 19:30 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최수열  
피아노 손민수 (2023 올해의 예술가)

### Program

하이든 / 교향곡 제104번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 605 Prokofiev and Rachmaninov

11월 17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사오치아 루  
바이올린 백주영

### Program

프로코피예프 /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2번



## 606 6 Last Works VI Pärt and Strauss

12월 14일 THU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 Program

파트 / 벤자민 브리튼을 기리는 칸투스  
슈트라우스 / 영웅의 생애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3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 특별한 혜택

###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 <부산으로부터의 초대>

2023년 1월 3일(화)-1월 17일(화)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3일 R석 20매, 이외 회차별 20매)

###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1월 29일(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40매)

### 쓰리보이즈 리턴즈

2월 10일(금) 오후 7:30, 2월 11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S석 2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200)

#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3월 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양인모&김다슬 듀오 바이올린 리사이틀  
3월 29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40매)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4월 7일(금) 오후 7:30, 4월 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S석 40매)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4월 22일(토)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빈 기타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4월 27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40매)

핑크퐁 클래식 나라  
뚜띠를 찾아라  
2023년 5월 20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S석 40매)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2023년 5월 26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S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2023년 10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40매)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호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중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2)

#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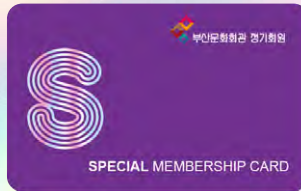
##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측 협의에 한함)



VIP

-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부산문화회관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와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b>공통혜택</b>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b>등급별 추가 혜택</b>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1, www.bscc.or.kr)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재]부산문화회관 2023년도 상반기 다듬채 대관 접수 안내

(재)부산문화회관 연습동 다듬채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대관을 접수합니다.

**대상** 다듬채 1층 연극/무용연습실, 2층 음악연습실(부산문화회관 연습실)

**대관기간** 2023년 1월 ~ 6월  
※ 접수가능 일정은 매주 금요일(17:00) 기준으로 홈페이지 업데이트  
(www.bscc.or.kr 부산문화회관-대관서비스-대관공지사항)

**접수기간** 2022년 12월 19일(월)~상시 접수

**대관구분 및  
사용료**

- ▶ 오전 : 09:00~12:00(44,000원)
- ▶ 오후 : 13:00~17:00(55,000원)
- ▶ 야간 : 18:00~22:00(55,000원)
- ▶ 피아노 사용 : 1회 11,000원

**결과안내**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겹칠 경우 결과 안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rent@bscc.or.kr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접수)

## 대관신청 및 승인 절차

신청 및 접수

→ 심의

→ 결과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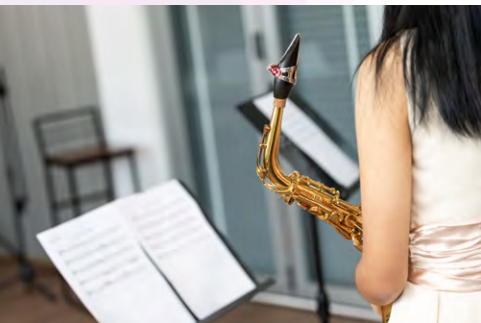
**대관신청서** 시설대관신청서, 세부계획서 작성 후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신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파일 첨부  
※ 세부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 심의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 사용 승인 후 3~7일 이내 납부  
※ 기한 내 대관료 미입금 시 대관 승인이 자동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취소 및 환불**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시 전액 환불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 ☎ 051-607-6051



26TH  
ANNIVERSARY



M · U · S · I · C · A · L  
★  
42ND  
STREET

뮤지컬 브로드웨이42번가

★★ 송일국 ★ 이종혁 ★ 정영주 ★ 배해선 ★ 신영숙 ★ 전수경 ★ 홍지민 ★ 오소연 ★ 유낙원 ★ 김동호 ★ 아주순 ★★

2023.2.3(금)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제작 CJ ENM 주최/주관 WSM 부산문화회관 시간 금 7시 30분 / 토 2시, 7시 / 일 2시 예매 인터파크, 예스24, 11번가티켓 문의 1566-5490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1인 2매 / 1566-5490 전화예매시 ★★

MUSIC BY HARRY WARREN. LYRICS BY AL BURN. BOOK BY MICHAEL STEWART & MARK BRAMBLE. BASED ON THE NOVEL BY BRADFORD BOYES. ORIGINAL DIRECTION AND DANCES BY BOWER HAMPTON. ORIGINALLY PRODUCED ON BROADWAY BY DAVID MERRICK. THE USE OF ALL RIGHTS BY ARRANGEMENT WITH WARNER BROS. THE WORLD OF MUSIC PUBLISHERS' RIGHTS. MUSICAL ADAPTATION, ARRANGEMENTS AND ADDITIONAL DIRECTION BY DONALD JOHNSON. 42ND STREET IS PRESENTED BY ARRANGEMENT WITH TMAC WITMARK MUSIC LIBRARY, INC. 155 LEXINGTON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U.S.A.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Busan Cultural Center

#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씬머니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COUPON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PO 2030  
BUSAN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가족 동화뮤지컬

#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2023. 3. 16(목) - 4. 27(목)

평일 11시 / 주말 11시, 14시 (월, 화 휴관)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3. 1.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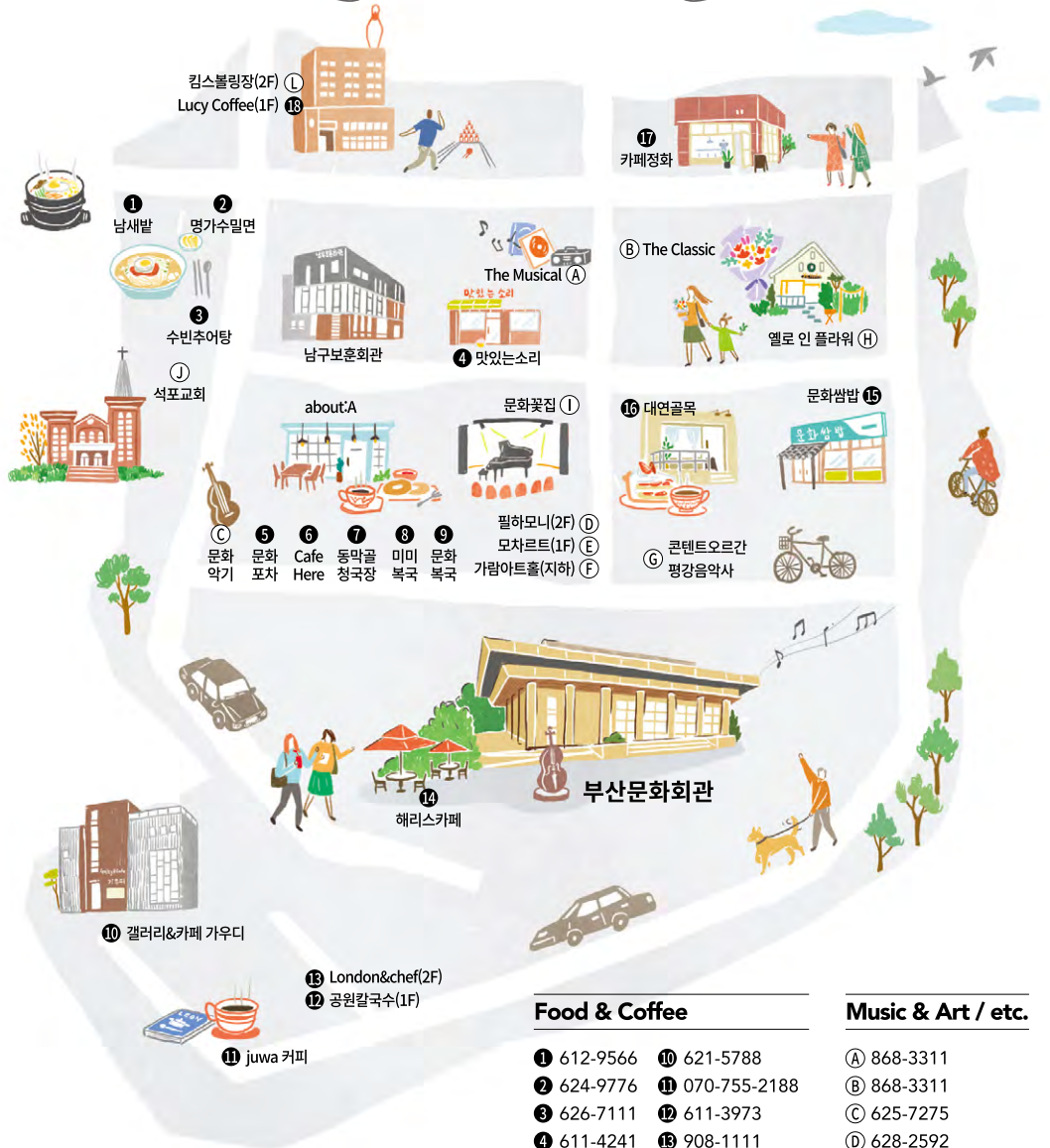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① 612-9566    ⑩ 621-5788
- ② 624-9776    ⑪ 070-755-2188
- ③ 626-7111    ⑫ 611-3973
- ④ 611-4241    ⑬ 908-1111
- ⑤ 626-4448    ⑭ 625-9402
- ⑥ 622-7412    ⑮ 626-2292
- ⑦ 611-3589    ⑯ 010-3996-6498
- ⑧ 628-8009    ⑰ 623-0772
- ⑨ 621-7040    ⑱ 628-3832

**Music & Art / etc.**

- Ⓐ 868-3311
- Ⓑ 868-3311
- Ⓒ 625-7275
- Ⓓ 628-2592
- Ⓔ 622-1456
- Ⓕ 621-6669
- Ⓖ 626-7900
- Ⓘ 080-337-3370
- Ⓝ 622-9722
- Ⓞ 625-8704

COUPON



###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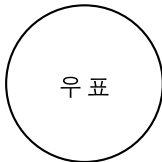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50  
051)513-4500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

주소 .....



받는 사람

이름 .....

주소 .....



##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2023



JANUARY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인생 2막, 새로운 청춘!  
다시 가슴이 뛰다!!

# 쓰리보이즈 리턴즈

관람연령 | 만7세 이상 관람가

강열우

황해순

정승천

2023. 2.10. 금 — 2.11. 토 19: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주최·주관 : (재)부산문화회관    제작 : 공연집단The  
티켓 20,000원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월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제18회 쇼팽 콩쿠르 우승자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2023.03.10.(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6만원, S석 4만원



제12회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 우승자와  
2005년 나고야 국제 콩쿠르 우승자  
양인모 & 김다솔 듀오 리사이틀

2023.03.29.(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World Competition Winner Series



최고 권위의 빈 기타 국제 콩쿠르 2021년·2022년 우승자  
빈 기타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2023.04.27.(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5만원, S석 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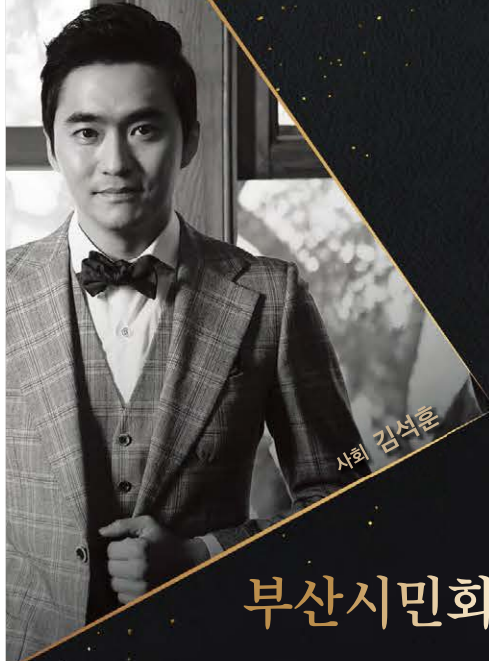
제15회 반 클라이번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2023.10.06.(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예매 : 부산문화회관, 인터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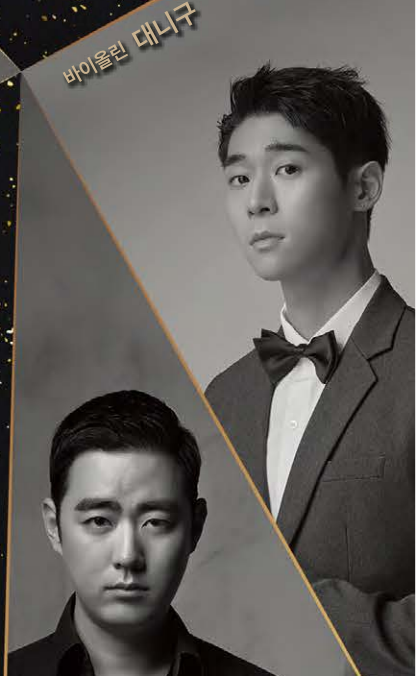




사회 김석훈



첼로 송영훈



바이올린 대니구



지휘 최수열  
피아노 박종해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부산시향과 함께하는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2023. 1. 10. (TUE) 19: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예매 및 문의 | 부산시민회관  
051-607-6000(ARS1번) www.bscc.or.kr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가  
주최/주관 | (재)부산문화회관

